



한돈협, 안용덕 인천공항 지역본부장에 감사패 전달 다양한 방역활동과 한돈산업 발전에 대한 공로

대한한돈협회가 지난 2월 7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안용덕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을 찾아 그간 한돈산업 발전에 대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손세희 회장은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국장을 역임하며,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방역을 포함한 다양한 방역 활동에서 보여준



탁월한 리더십과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히고, “안 본부장의 이러한 노력이 한돈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밝혔다.

손세희 회장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경검역에서도 현실성 있는 절차를 마련해 질병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해 줄 것을 요청하며, 특히 설 명절을 맞이하여 국경 검역에 더욱 매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도 함께 전달했다.

안용덕 본부장은 한돈농가에 감사함을 전하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검역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라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 여행자 및 귀성객 이동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국경검역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용덕 본부장은 지난 2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으로 인사 이동해 설 명절을 앞두고 국경 검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1차 구제역 대책반 회의 개최

내년 구제역 청정 지위 재도전...피내접종은 26년 이후 전망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15일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 제1차 구제역 대책반 회의를 개최하고 구제역 청정국 지위 재도전과 백신 접종 방식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2018년 이후 상시 발생 중인 구제역에 대응해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김지호 사무관은 내년 5월 구제역 접종 청정국 재신청을 목표로 다시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충북 소농장에서의 구제역 발생으로 청정국 신청이 불발된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날 한돈업계는 구제역 백신 청정국 지위 획득과는 별개로 구제역 백신 피내접종용 백신 품목 허가 및 상용화를 통한 구제역 백신의 접종 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재혁 한돈협회 정책기획부장은 “구제역 백신 2회 접종 의무화에 따라 접종 후 나타나는 이상육 발생으로 육가공업체 정산시 패널티 부과로 한돈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현행 근육 부위 접종 대신 피내·피하 접종용 구제역 백신 품목 허가 및 상시 백신 선정 등을 통한 조기 현장 적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한 검역본부 박사는 “피내 접종이 확산될 경우 구제역 백신 접종 전 이상육 발생 수준(30%→5%)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내 접종 백신 효능 평가 및 백신 현장 적용을 거쳐 2026년 이후에는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현재 피내접종용 구제역 백신 제품화를 위해 (주)FVC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 업체의 구제역 국산화를 위해 지원과 독려를 지속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엑스피바이오의 이원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구제역 방역대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효율적인 차단 방역 강조, 이상육 발생 현황과 대책 제언,

그리고 백신 접종 청정국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며 구제역 방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강조했다.

한돈협회 왕영일 감사는 “그동안 피내접종백신 관련하여 연구실험은 충분히 했다고 본다. 재래식 농장에서 보정 없이 돼지 제공하고 채혈 해줬는데 접종 숙련도에 상관없이 데이터 결과가 좋았다. 더 이상 지지부진 하면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충남대 이종수 교수는 “이상육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피내 접종으로 가야 한다. FVC항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수입된 항원으로 피내 접종용 백신을 개발한다면 도입 시기를 단축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부에서 정책적인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무침주사기 적용이 빨라질수 있을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이윤희 수의연구관은 “다른 의원들 의견처럼 구제역 접종으로 인한 이상육 피해 해결을 위해 피내 접종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접종자의 숙련도, 양돈장의 시설 등에 따른 차이를 대비해 다양한 실험결과가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한한돈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구제역 방역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한돈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다짐했다.

외식 삼겹살 2만원 시대...농가는 억울하다 왕영일 감사, “도매 하락에도 소매 미반영” MBC 인터뷰

외식 삼겹살 1인분(200g 기준) 2만원 시대, 소비자는 비싸다 외면하고 농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돈협회는 방송을 통해 농가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한한돈협회 왕영일 감사와 조진현 전무는 지난 2월 1일 MBC 생방송 오늘 아침 방송에 전화 인터뷰를



통해 높은 삼겹살 가격과 관련, 농가들의 억울함을 시청자들에게 전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외식 평균가격은 200g 기준으로 1만9천429원으로 2년 전보다 35%나 오르면서 이제 1인분에 2만 원을 넘는 곳도 흔히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외식업체들은 각종 재료비와 인건비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삼겹살 소매가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한돈 산지 가격은 지난해 6월 kg당 5천5백원을 넘었지만 올 1월에는 6개월만에 4천원대로 뚝 떨어졌다. 하지만 도매가격 하락이 외식 가격 인하로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조진현 전무는 “식당에서 파는 삼겹살 1인분 가격 중에 원료인 돼지고기 원가가 50%가 훨씬 안된다”며, “최근 크게 오른 채솟값이라든지 인건비, 심지어 식당 전기료 인상까지 다 반영되다보니깐 식당에서는 판매 가격을 떨어뜨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삼겹살 가격이 계속 높다고만 얘기하니깐 농가들은 억울한 상황이다”고 호소했다. 왕영일 감사도 “삼겹살 가격 상승에도 농가는 사료 가격이 급등하고, 전기요금이나 인건비나 자재비나 모든 물가가 상승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돼서 생산비가 불어나 대부분의 농장이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이인철 경제 평론가는 “돼지고기 가격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부재료며 유통비며 인건비며 이런 것들이 다 올라서 돼지고기가 사실상 지금 비용이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전체 물가수준을 좀 낮추고 인건비며 서비스료며 부대 비용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지 한곳에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이걸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가 않다”고 평론했다.

돼지 적정 사육 기준 '축산법' 따라야 한돈협, 환경부 축산법 적용 유권해석 배포

그동안 논란이 됐었던 가축 적정 사육두수 기준에 대해 환경부가 축산법을 따라야 한다고 유권 해석했다.

한돈협회는 가축분뇨법과 축산법에 따른 사육두수 기준 적용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가축 적정 사육두수 기준은 축산법을 따라야 한다는 명확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몇년간 축산법의 적정 사육두수 기준과 가축분뇨법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따른 가축분뇨법 배출 허가증 상 적정 사육규모 기준이 일원화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큰 혼란을 빚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 운명을 달리한 고(故) 정연우 보성지부장의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른 기준 사육두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육두수 감축을 요구받았다는 유가족의 주장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에 협회는 이 같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에 가축 적정 사육두수 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한 결과, 환경부는 “가축분뇨 배출면적당 사육두수 산정기준은 '축산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적정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다”며,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가축분뇨 배출량이 50% 이상 변경 시

변경 허가가, 30% 이상 변경 시 변경신고가 필요하며, 30% 이내 증가한 경우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이번 환경부의 유권해석은 현장에서 문제가 되었던 가축 적정 사육두수 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침이다”며,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다시는 보성 한돈농가와 같은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고 역설했다.

축사, 농촌 위해시설 규정은 “기본권 침해”

한돈협,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법무법인에 유권해석...적극 대응키로

오는 3월 29일부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된다. 이 법안의 시행 규칙에는 농촌 유해 시설과 관련 ‘농림축산식품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농촌 생활, 경관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며 악취 방지법 시행 규칙 3조에 따른 악취 배출 시설을 포함했다. 즉 ‘축산 시설’과 주민이 구체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시설까지 농촌 위해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헌법적·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법무법인에 검토를 요청한 결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 ‘축산시설’을 위해 시설로 포함할 수 있다는 규정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반, 축산농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법률적 해석을 얻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의 검토 의견에 따르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범위는 ‘농업식품 기본법’에 의해 축산업을 포함한 농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인 농촌에서의 생활, 경관 및 환경을 말하는 것으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시설인 축사시설 자체를 농촌 위해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모법이 수권한 규율 대상과 목적의 범위는 벗어나는 것으로 이는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악취 배출 시설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환경에 위해를 가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위해시설로 지정할 경우 지극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 강제 이전·철거 및 수용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위임 목적에 벗어난다. 특히 이 법은 계획수립권자 및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모든 축산시설을 농촌위해시설로 정해 농촌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강제 이전·철거를 허용하는 것은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해 축산농가의 재산권, 직업의 자유, 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돈협회는 이 같은 법률적 자문을 바탕으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 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지난 1월 31일에 제출했다. 협회는 의견을 제출하며 농촌 정비 사업을 강제 이전·철거 수용이 아닌, 시설물과 공존하고 환경·경관 개선이 필요할 경우 이를 위한 정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돈협, '양돈장 탄소 흡수원 지원 사업' 실시 '양돈 탄소 흡수산업' 이미지 제고



한돈협회가 양돈 탄소 중립의 일환으로 '양돈장 탄소 흡수원 지원 사업'을 전개키로 했다. 한돈협회·한돈자조금은 지난 2014년부터 아름다운 양돈장 만들기의 일환으로 양돈장 나무 심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나무 심기 캠페인에 참여한 농장들은 주변 환경과 공존으로 환경 부담이 최소화되고 있으며, 특히 냄새 문제 해결과 주위 민원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전국 2천여 개 농가에 약 26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고 있다. 협회는 금년에는 명칭을 바꿔 '양돈장 탄소 흡수원 지원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양돈이 탄소 배출 산업이 아닌 탄소 흡수 산업이라는 인식을 널리 인식시키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협회는 2월 2일까지 수요 조사를 통해 신청 농가들에게 나무 구입 비용을 50% (최대 1백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나무 수종은 탄소 저장량이 많은 ▲측백나무 ▲서양측백 ▲편백 ▲백합 ▲왕벚나무로 추천키로 했다.

한돈협-종축개량협, 종돈산업 발전 방안 토론회 개최 정보 교류 통해 한돈산업 발전 도모 협력체계 구축키로

대한한돈협회와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소비자 중심의 종돈 개량 방향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 공유 등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한돈산업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와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운)는



지난 2월 19일 제2축산회관 지하대회의실에서 ‘종돈산업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종돈 개량 목표 방향 설정과 제도 개선 문제가 화두로 다뤄졌다.

이날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한국종축개량협회 김정일 부장은 국내 종돈 개량 방향과 개선방안으로 FCR 개량형질 추가, 자동도체등급판정기를 통한 육질 형질 추가, 종돈장과 비육농장 간 데이터에 연계한 개량지표 개발 등 국가단위 개량사업의 장기적인 로드맵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한돈협회 이동주 농가지원부장은 종돈장 위생관리 및 수입종돈 질병관리 방안으로 PRRS 청정화·안정화 후보돈의 입식 가이드라인 제시, 질병 프로파일 정보 공개, 수입종돈 관리체계 마련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문석주 대한한돈협회 부회장은 “생산자 입장에서 우리가 키운 돼지고기가 어떤 맛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는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간 산자수 부분에서 종돈 개량의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양돈농가들이 사료값·인건비 등 생산비 상승과 더불어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을 위해 생산비 절감과 육질 등 부분에서 개량 방향이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한별팜텍 원장은 “종돈장들의 질병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수시로 검사를 진행하고, AI 센터 정액도 상시 검사해야 한다. 검사 시 양성 나오면 이동을 못하게 해야 방역관리가 될 수 있다. 특히 분기마다 한 번씩 질병 검사하는 것을 한돈팜스와 연계해 질병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연섭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한돈협회와 종축개량협회가 협의회를 만들어 개선하려는 것을 정부 입장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다만 현재 종돈 개량의 명확한 목표가 없다. 앞으로

어떤 방향과 목표로 육성하고 개량할 것인지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세희 회장은 “지속가능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선 종돈 개량 목표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과거에는 생산성 위주로 개량했지만 앞으로는 한돈 고급화, 질병 근절 등 분야에도 접근해 한돈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운 회장은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 양 협회간 협업 관계를 구축하여 정보 교류 및 분석을 통해 양돈농가에 피드백하는 것이 목표이다. 앞으로 실무자들끼리 계속 소통하여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준회원 문턱 낮춰 확대 추진

한돈산업 준회원 증대 캠페인 통해 '우군' 늘릴 것

한돈협회가 지속적인 한돈 농가 감소 대안으로 한돈 준회원 가입 확대를 통해 한돈산업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대내외에 대변키로 했다.

지난 2월 6일 열린 2024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참석자들은 한돈산업이 국민의

식량산업으로 성장, 전후방 사업까지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핵심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국내 한돈농가 수 급감으로 한돈농가의 목소리는 점차 줄어들자 정부의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함께 했다.

이에 협회는 준회원 제도를 도입, 회원수 확대를 통한 한돈산업과 관련된 전후방산업의 목소리도 대변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그동안 준회원은 한돈산업과 관련된 사료, 기자재, 동물약품, 수의·방역, 건축, 학계 등 전후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대상으로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문턱을 더 낮춰 한돈인증점, 소비자단체 등 한돈을 사랑하는 누구나 한돈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 한돈산업 구성원을 더욱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도드람양돈농협

도드람양돈농협, 2023 농·축협 클린뱅크 달성

도드람 금융사업본부, 클린뱅크 인증패 수상

도드람양돈농협 금융사업본부는 '2023년 클린뱅크'로 선정돼 인증패를 받았다고 지난 2월 13일 밝혔다.

'클린뱅크' 인증은 농협중앙회가 매년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연체 비율과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 및 손실 흡수율 등의 종합 평가를 통해 기준에 합당한 농·축협을 선정하는 제도다.



2023 클린뱅크는 전국 1111개 농·축협 중 236개의 농·축협만 인증을 받았으며, 도드람양돈농협의 지난해 금융 성과는 연체율 0.7%, 고정이하비율 1.08%, 대손충당금비율 125.29%, 손실 흡수율 209.42%, 여신평잔 7269억원을 기록했다.

박광욱 도드람 조합장은 "이번 클린뱅크 인증으로 도드람양돈농협의 자산건전성이 개선되고 있음을 증명했다"며, "여전히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드람양돈농협은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자산건전성 제고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박하선·류수영 부부, 도드람 홍보모델 재계약...4년째 인연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박광욱)은 지난 2월 15일 연예계 대표 미식가 부부 박하선·류수영 부부와 홍보모델 재계약을 체결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하선 류수영 부부는 2021년 인연을 시작으로 4년째 도드람과 함께하며 도드람 한돈의 우수한 맛과 신선한 품질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이어왔다.



도드람 관계자는 “박하선 류수영 부부와 함께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한돈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보다 가까운 일상에서 소비자와 소통하는 전문식품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재계약을 기념하며 도드람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에서 ‘박하선&류수영의 도드람 4랑해’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경기양돈농협

서울경기양돈농협 ‘허브한돈’ 직거래 장터 참여 ‘설 명절 도농상생 직거래 큰장터’서

서울경기양돈농협(조합장 이정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잇따라 직거래장터에 참여하며 자체 브랜드 ‘허브한돈’ 홍보에 나섰다.

서경양돈농협은 지난 1월 31일 강남구청, 2월 1일 서울고등법원을 각각 찾아 ‘허브한돈’을 판매했다. 장터에서는 부위별로 최대 25%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이며 소비자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정배 조합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시민에게 고품질 한돈을 공급하고, 물가 안정에도 이바지하고자 다양한 장소에서 판촉활동을 열심히 펼치고 있다”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허브한돈’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니 앞으로 열릴 직거래 장터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한편 서경양돈농협은 지난 6~8일 서울 강동구 서울농협본부 주차장에서 열리는 직거래 장터에서도 판매 차량을 운영했다.

서울경기양돈농협,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합원 1인당 최대 25만 원

서울경기양돈농협(조합장 이정배)이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대상포진은 발병 시 극심한 통증과 후유증을 유발해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고가의 접종비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발생해왔던 만큼 이를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비용은 조합원 1인당 최대 25만 원이 지원되며, 국내 의료기관에서 모두 가능하다. 이정배 조합장은 “전 조합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으로 조합원님들의 의료비 경감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조합원들님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경기양돈농협, 재해 위로금 전달 최근 화재피해 조합원에

서울경기양돈농협(조합장 이정배)은 지난 1월 24일 최근 화재 피해를 입은 경기도 용인지역 조합원에게 재해위로금을 전달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했다. 이정배 조합장은 “돈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조속한 복구를 위해 조합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갑작스럽게 피해를 입은 조합원님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양돈농협

'계통사료 연간 6만톤 판매 달성탑' 수상

대구경북양돈농협(조합장 이상용 이하 대경양돈)은 지난 2월 1일 농협중앙회 대경당에서 있는 정례조회에서 2023년도 계통사료 사업추진우수 사무소로 선정돼 '계통사료 6만 톤 달성탑'을 수상했다.

사료 판매달성탑은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가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료사업



발전에 이바지한 축협의 계통사료 판매실적을 평가해 시상하는 제도로 축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사료 부문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대경양돈은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조합원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도적으로 사료값을 인하해 조합원에 실익을 주고 있다.

이상용 조합장은 “이번 계통사료 6만 톤 판매 달성은 조합원들의 신뢰와 조합발전을 위한 마음을 바탕으로 우리 임직원들이 한뜻으로 움직여 만들어 낸 결과라고 생각 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 우수한 품질의 계통사료를 축산농가에 확대 판매함으로써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최우선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대경양돈이 되겠다”고 밝혔다.

2024년 사업추진 결의대회 개최

대구경북양돈농협 (조합장 이상용)은 지난 2월 15일 대구경북양돈농협 본점에서 2024년 사업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축산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는데 목표로 하며 사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금년도 사업추진에 대한 목표달성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더불어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함께 실시하여 범농협 임직원이 지켜야할 3행3무 실천운동 결의문을 낭독하여 신뢰받는 청렴농협 구현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하였다.

이상용 조합장은 “이번 2024년 새로운 슬로건인 ”함께하는 2조시대에, 우리는?“에는 다가올 미래와 그 미래에 대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모습에 대한 물음이 담겨져 있다. 이러한 물음에 우리는 끊임없는 해답을 찾아나갈 것이다. 특히 이번 사업추진 결의대회를 통해 2024년에 우리가 만들어 나아 가야하는 비전을 실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제주양돈농협

제주양돈농협, 기로회요양원에 돼지고기 전달

제주양돈농협(조합장 고권진)은 지난 2월 13일 서귀포시 상호동에 위치한 기로회요양원(원장 현미숙)을 방문해 어르신들 식단 표에 맞춰 기력회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돼지 한 마리 등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최대 명절 기간에 가족과의 면담·소통이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영양 만점 돈육을 지원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드시고 조금이나마 섭섭한 마음 치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했다.

고권진 조합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욱 편안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에 적극 동참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며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양돈, 24시 뱀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 현장 방문

제주양돈농협(조합장 고권진)은 지난 1월 31일 24시 뱀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업체 4곳을 현장 방문해 돼지고기 선물세트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1월 24일 제주양돈농협에서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방제업체로 올 한해 제주도내 권역별로 축산사업장과 주변 주거지역 등에 미생물제제를 살포해 뱀새발생의 사전

예방, 발생민원 관리와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권진 조합장은 “추운 날씨에도 냄새민원에 즉각적으로 현장대응을 하고 지속적인 냄새 모니터링을 하는 등 방제단의 노력이 제주양돈산업과 지역사회 상생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가오는 설 연휴기간에도 집중적인 방제와 즉각적인 민원대응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주양돈농협, 창립 38주년 기념행사·신년하례회 성료

제주양돈농협(조합장 고권진)은 지난 1월 19일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장 및 선대 조합장과 부녀회장, 조합원을 비롯한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8주년 기념식 및 신년 하례회를 개최했다.

제주양돈농협은 1986년 1월 20일 당시 만연했던 유통 부조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주 양돈인들이 뜻을 모아 설립됐다.

협동조합의 이념을 기본바탕으로 양돈사업과 지역사회에 언제나 함께하고자 따뜻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며, 창립 후 삼십여 년 동안 제주도민의 사랑으로 전국 농·축협 중 규모와 실적에서 상위권 조합으로 성장했다. 고권진 조합장은 “앞으로 조합원과 고객, 직원을 만족시키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동행하는 조합으로 더욱 더 발전해 나가겠다”며, “조합 초창기 선배 조합원님들의 깊은 뜻을 되새기고 언제나 초심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부경양돈농협

부경양돈농협, 포크밸리 농축산마트 주촌점 개점

부경양돈농협 자회사 부경양돈M&F, 포크밸리 농축산마트 주촌점 개점

부경양돈농협(조합장 이재식) 자회사 부경양돈엠앤에프(M&F)는 지난 1월 31일 포크밸리 농축산마트 주촌점 개점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이재식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진, 인근지역 조합원 대의원과 조합원, 운용대 노동조합 위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포크밸리 농축산마트 주촌점은 경남 김해시 주촌면 내삼로 16에(약 60평) 규모로 인근에 농공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자리 잡았다. 지난해 준공된 종합축산물공판장인 포크밸리유통센터로부터 400m 떨어진 왕복 6차선 도로변에 위치해 탁트인 시야와 넓은 주차공간으로 고객 접근 편의성이 높다.

포크밸리 농축산마트 주촌점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판매장들 보다 취급 품목이 다양해졌으며 주촌점 인근에 마트가 없는 지역적 특징을 고려해 주력 제품인 축산물과 더불어 농산물(양곡, 야채, 청과, 수산물), 주류, 담배, 종량제 봉투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한다. 이를 토대로 축산물 소매판매에 더해 식자재 납품과 도매거래 활성화도 전략적으로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포크밸리 농축산마트 주촌점은 매장 입지와 규모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오후 퇴근시간과 주말, 차량을 이용한 고객 등이 주고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크밸리 농축산마트 주촌점 관계자는 “포크밸리유통센터에 가장 가까운 매장이므로써 전체 판매장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확보하고 철저한 위생관리와 더불어 친절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경양돈농협, 사업추진 및 윤리경영 실천 결의

부경양돈농협(조합장 이재식)은 지난 1월 5일부터 18일까지 사업부별 전체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사업추진 결의대회’와 ‘윤리경영(3행3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야심찬 발걸음을 가속화했다.

2024년 사업추진 결의대회에서는 선택과 집중으로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구축 및 사업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해 사업부별 핵심사업에 대한 중점 추진전략을 점검하는 동시에 축산업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농협의 대외 신인도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는 한편 사업 물량 4조 6,000억 원과 당기순이익 70억 원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윤리경영(3행3무) 실천 결의대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농협,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을 위해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해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윤리경영 실천 등 정도경영 준수를 다짐하는 ‘범농협 3행 3무 실천운동’을 펼치기로 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금년에 있을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깨끗하게 치르겠다는 다짐도 함께했다.

농협이 선포한 윤리경영 3행3무(3行3無)는 ‘청렴·소통·배려’를 실천하고, ‘사고·갑질·성희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임직원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실천운동으로 부경양돈농협이 모범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결의대회 개최와 더불어 사업부별로 사회공헌활동도 같이 실천했다. 경영기획실에서는 지역사회 환경정화 활동을, 공판사업본부와 사료사업본부에서는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 헌혈차량에서 헌혈운동을 실천했다. 한편 부경양돈농협은 2024년 한해 사업부 여건에 맞춰 헌혈운동과 환경정화 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식 조합장은 “농업·농촌의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는 시대에 농협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회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조합원의 실익 증진과 지속가능한 조합 경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밝히고 “임직원과 조합원이 하나로 뭉쳐 동심동덕(同心同德), 임사이구(臨事而懼)의 마음가짐으로 부경양돈농협의 성장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충남양돈농협

포크빌 통합사업장 본격 운영...축산물 판매 확대에 총력 기존 포크빌축산물공판장과 분할육 가공장 통합

대전충남양돈농협(조합장 이제만)이 최근 축산물 공판장과 분할육(팩에 담긴 소포장 돼지고기) 가공장을 통합한 '포크빌 통합 사업장' 운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돼지를 도축·가공해 부분육으로 판매하던 공판장이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할 수 있는 분할육까지 생산하는 일관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을 잘 팔아주는 농협 본연의 역할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충남양돈농협은 2020년 7월 준공한 포크빌축산물공판장을 운영하고 있다. 공판장이 도축·가공한 물량은 해마다 증가해 2023년 기준 돼지 67만,8000마리, 소 7만2,600마리였다. 돼지 기준으로 국내 2위에 해당할 정도로 공판장은 큰 성장을 일궜다.

공판장을 처음 지을 때만 해도 “과도한 투자”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지금은 지역 축산농가에 없어서는 안될 시설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공판장 운영에 다소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 통합사업장을 세우기 전까지는 공판장에서 돼지를 도축·가공한 후 부위별·용도별 분할육으로 만드는 작업이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제2공장에서 이뤄졌다. 돼지고기를 제2공장으로 옮기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고 교차 오염의 우려도 상존했다. 인력 운용 효율성도 떨어졌다. 이에 대전충남양돈농협은 총 126억5,400만원(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 10억원)을 들여 5층 규모의 시설을 공판장 옆에 신축했다. 2공장에서 수행하던 분할육 공정을 통합해 운영하려는 목적이다. 이 시설은 시간당 최대 2,500팩의 분할육을 포장할 수 있는 기계 2대를 갖추고 25종에 이르는 '포크빌포도먹은돼지' 제품을 생산한다. 주요 판로는 백화점·마트·학교급식과 농협 하나로마트, 온라인 마켓 등이다. 특히 유통 환경 변화에 따라 쿠팡·마켓컬리 같은 온라인 매장 매출이 급증하는 추세다. 대전충남양돈농협은 지난해 공판장에서 생산한 부분육과 제2공장의 분할육을 합해 1,3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는 통합 사업장에서 1,600억원, 2025년에는 1,800억원을 넘어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판장에서 생산한 부분육을 바로 분할육 공정으로

보내 전체 처리 용량을 늘렸기 때문에 목표달성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게 농협 설명이다. 이제만 조합장은 “기존 공판장과 제2공장을 통합한 가장 큰 이유는 돼지고기 판매 역량을 키워 조합원이 생산한 돼지를 안정적으로 판매해주려는 것”이라며, “앞으로 쇠고기 분할육 생산 시설도 세워 조합 경쟁력을 한층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강원양돈농협

강원양돈농협, 제 32기 정기총회 개최

강원양돈농협(조합장 최덕식)은 지난 1월 31일 본점 대회의실에서 임원과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 32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사업을 결산했다.

강원양돈농협은 지난해 러·우 전쟁 장기화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에너지가격 및 세계 곡물가격 상승, 고금리와 고물가, 세계



적인 인플레이션, 각종 원자재 등 생산원가상승,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조합원과 임직원들의 하나 된 마음으로 각종사업을 추진한 결과 당기순이익 15억800만원을 실현해 건전결산했다.

이는 조합원 중심의 조합운영과 경영참여 확대,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 조합원 지원확대를 위한 건전경영 실현,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성장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사업추진에 매진한 결과이다.

지도·교육지원사업으로 건강검진 실시, 생균제 보조금 지원, 농장 질병 검사비 지급, 구서·구충 작업 지원, 정액보조비 지원, 자연순환농업 지원, 재해(화재) 지원, 가축재해보험 지원, 모돈갱신비 지원, 학자금 지원 등 농가의 생산비절감과 조합원 실익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글로벌

세계 돈육 생산량 4년 만에 감소 전망 USDA 전년비 0.9% ↓ 교역은 ↑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이 4년만에 감소할 전망이다.

미국 농무부(USDA)는 지난 12일 세계 축산물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24년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이 1억1천415만톤으로 전년도 1억1천521만5천톤 대비 0.9% 줄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10월 전망치(1억1천549만2천톤)에 비해서도 1% 이상 하향 조정된 물량이다.

21년부터 이어진 세계 돈육 생산량 증가세가 올해 꺾일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의 ASF 여파로 2020년 1억톤 이하로 줄었던 생산은 중국의 양돈업 재건과 함께 증가세로 돌아서 23년까지 계속 늘었다. 그러나 올해 중국의 생산이 5천520만톤으로 23년보다 3% 감소하며 세계 생산량 추이도 변화를 맞을 것이란 분석이다. 중국이 지속된 양돈 적자로 지난해 모돈 규모를 줄인 결과로 풀이된다. 중국뿐만이 아니다. EU와 캐나다 역시 23년에 이어 올해도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농무부는 전망했다. EU는 올해 2천70만톤이 예상됐는데 이는 22년 대비 0.7%, 21년 대비로는 무려 12.3% 적다.

반면 미국과 브라질은 생산이 증가하며 다른 주요국들의 생산 감소분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은 생산성 제고로, 또 브라질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산비로 수출이 계속 호조를 보이며 생산량 증가를 뒷받침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미국과 브라질은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미국의 경우 올해 수출이 전년 대비 1.5% 증가한 311만6천톤으로 EU의 예상 수출 물량(310만톤)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브라질도 당초 예상보다는 수출 전망치가 다소 하향 조정됐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전체 세계 돼지고기 교역(수출) 규모는 1천18만5천톤으로 1.8% 늘 것으로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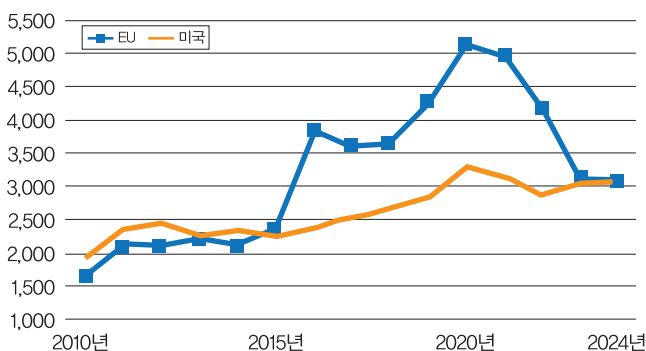
자연히 수입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그 중 중국은 225만톤으로 전년 대비 17% 늘고 일본과 한국도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중국의 경우 수입량 전망이 다소 하향 조정됐으며 그 결과 주요 수출국들의 수출 전망치도 끌어내렸다. 최근 중국의 수요 부진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으로 중국의 수요 추이가 올해 세계 돼지고기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

돈육 수출, EU 꺾고 1위 예상 EU 수출 저조, 中 수요 감소도 한 몫

세계 돼지고기 수출국들이 연이어 순위 바꿈을 하고 있다. 지난해 브라질이 캐나다를 따라잡은데 이어 올해는 미국과 EU(유럽연합)의 순위 바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23년 세계 돼지고기 수출물량은 1천만 톤으로 전년도 1천94만3천톤보다



8.6% 감소한 가운데 EU(유럽연합)가 310만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307만톤, 브라질 141만 4천톤, 캐나다 130만톤 순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3~4위 국가들인 브라질과 캐나다의 경우 2020년만해도 캐나다 155만톤, 브라질 118만톤으로 캐나다의 수출이 월등히 많았다. 하지만 캐나다는 이때를 정점으로 이후 계속 수출이 감소한 반면 브라질은 증가, 지난해 처음으로 두 나라의 순위가 바뀐 것이다.

그런데 올해는 1, 2위의 순위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EU는 돼지 사육규모 위축과 그에 따른 돼짓값 급등,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의 수입 수요 감소로 돼지고기 수출이 계속 줄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지난해 EU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 덕을 보며 수출을 늘려 지난해 EU 수출 실적을 거의 따라 잡았다.

그리고 올해 이 같은 추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무부는 최근 24년 세계 축산물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각국의 돼지고기 수출에 대해 EU는 310만톤, 미국은 312만톤으로 미국이 다소 많을 것으로 추산했다. 순위가 바뀐다면 15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전망 보고서에서는 EU가 320만톤, 미국이 315만톤이었지만 미국과 EU 모두 하향 조정됐고 EU가 더 큰 폭으로 수출 전망이 하향 조정되며 역전이 일어났다.

양돈 12개월 중 10개월이 적자

23년 두당 26달러 손실, 돈가 약세에 모든 감소

지난해 미국 양돈산업은 09년 이후 최악의 한해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아이오와대 분석 결과 지난해 미국 양돈산업은 출하 돼지 두당 24.1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는 26.04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던 09년 이후 가장 큰 손실 규모라는 것이다. 7월과 8월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월간 적자가 이어졌다.



돼지 생산비도 높았지만 무엇보다 돼짓값이 연중 약세를 기록하며 양돈 적자 경영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이 같은 적자 누적으로 모든 두수는 계속 줄어 12월 기준 전년 대비 3.3% 감소하며 16년 이후 처음으로 600만마리를 밑돌았다.

한편 미국 농무부는 생산성 제고 영향을 고려, 올해 미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럽

유럽 농민들 일제히 거리로 시위 나서 독 프 벨 등 과도한 환경규제, 농업용 디젤 지원 중단에 폭발

유럽의 농심이 들끓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최근 독일, 폴란드, 루마니아, 프랑스, 벨기에 등에서 농민들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이처럼 봉기한 것은 과도한 환경 규제와 값싼 수입품과의 경쟁, 그리고 높은 생산 비용 등이 원인이 됐다.



독일은 지난달 베를린에서 3만여명의 농민들이 모여 농업용 디젤 세금 감면 폐지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폴란드에서는 EU가 우크라이나의 값싼 농산물을 수입하는데 항의하는 시위가 있었다. 지난달 말 있었던 프랑스 농민 시위는 더욱 격화된 양상을 보였다. 농민들이 트랙터로 프랑스 전역의 도로를 막고 건초더미에 불을 붙이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에 정부가 농업용 디젤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환경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지만 프랑스 농민들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어 벨기에서도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나와 지브뤼헤 컨테이너 항구로 접근하는 도로를 차단하는 등 시위가 이어졌다. 이들 역시 생산비 상승과 EU의 환경 정책, 값싼 수입 식품에 대해 항의했다. 이달 들어서는 스페인과 이탈리아로도 시위가 번지고 있다.

에너지 전환 노력의 일환으로 농업용 디젤에 대한 지원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이 도화선 역할을 한 셈이지만 일찍부터 EU 농민들의 불만은 누적돼 왔다. 그동안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와의 연대 차원에서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한편 남미 메르코수르와의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했다. 이로 인해 폴란드 등 몇몇 동유럽 국가들은 농민들의 불만이고조되자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나서며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또한 EU의 각종 친환경 정책이 점차 강력한 규제로 옥죄어 오는 데서도 불만은 쌓여갔다. 시위가 격화되자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일 농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무역 협정 시 농민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농심 달래기에 나섰다. 또 프랑스 정부는 농업용 연료 면세 유지와 각종 규제 완화 등을 약속하고 나서면서 농민단체들도 1일 트랙터 봉쇄 시위를 풀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약속 이행 여부에 따라 다시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작년 EU ASF 위협 더 커졌다

양돈장 발병 537건→4,513건, 멧돼지서도 늘어

지난해 EU(유럽연합) 내 ASF 발생이 급증했다. 야생 멧돼지 발생은 22년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사육 돼지의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

최근 EU 위원회에 따르면 23년 사육 돼지에서 발생한 ASF는 전년도 537건 대비 8배 이상(740%) 많은 4천513건으로 집계됐다.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에서 처음 발생한 가운데 이들 나라에서 각각 1천508건, 1천124건이 발생하며 피해 규모를 키웠다. 또 폴란드에서도 22년 14건서 지난해 30건으로, 이탈리아에서도 4건에서 17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독일은 1건으로 22년 3건서 감소했다.

야생 멧돼지 ASF도 지난해 7천903건으로 22년 7천442건보다 6.2% 증가했다. 멧돼지 ASF는 폴란드가 2천7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2년 2천152건보다 27.5% 늘어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이탈리아가 1천47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는데 이탈리아의 경우 22년 277건보다 무려 278% 증가했다. 독일은 야생 멧돼지 ASF가 899건으로 22년(1천628건)보다 감소하기는 했지만 EU 내에서는 세 번째로 발생두수가 많았다.

영국, 불법 수입 돈육에 '전전긍긍'

ASF 유입 우려...정부 대책 촉구

영국 양돈업계가 불법 수입되는 돼지고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영국 양돈협회는 최근 도버항에서 불법으로 수입된 돼지고기가 압수됐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정부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22년 9월 이후 도버 항에서 적발된 불법 수입 돈육이 57톤이며 더욱이 이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불법 수입이 우려되는 이유는 물가 상승으로 불법으로 수입되는 값싼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불법 수입 돼지고기가 ASF 바이러스의 유입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협회는 유럽에서 사람을 통해 ASF가 확산된 사례들에 비춰볼 때 감염된 육류 한 조각으로 영국 양돈산업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더욱 엄격한 육류 수입 규정과 감시를 당부했다.

덴마크, 축사서 발생하는 메탄 제거 기술 개발 88%까지 제거 확인...연구팀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것"

공기 중 저농도 메탄을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메탄은 축산업이 기후 변화의 주범으로 불리는 중요한 원인이다.

매튜 스탠리 존슨 덴마크 코펜하겐대 교수 연구팀은 자외선과 염소를 사용해 대기 중 저농도 메탄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달 국제학술지 '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에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를 통해 축사, 바이오 가스 생산공장, 폐수 처리장에서 온실가스를 제거해 기후 변화를 완화하는데 더 가까워졌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기후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메탄 가스 배출을 줄이면 지구 온도 상승이 즉각적으로 줄어든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85배 더 강력한 온실가스로 절반 이상은 인간에 의해 배출되며 가축과 화석 연료 생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기 중의 메탄 농도가 4%가 넘을 때는 연소시켜 제거할 수 있지만 축사와 같은 저농도 점오염원에서 발생하는 메탄은 제거가 불가능했다. 그런데 연구팀이 만든 반응 챔버는 저농도의 메탄 제거가 가능하며 공기 중 메탄의 58%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길쭉한 금속 상자의 형태인 반응 챔버는 상자 내부에서 자외선과 염소를 이용한 화학화합물 연쇄 반응이 일어나 메탄을 분해하고 공기에서 가스의 상당 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논문 제출 이후 메탄 제거율이 88%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독일, 돼지 출하 줄어도 생산액 증가 작년 85억유로 15% ↑

독일의 지난해 돼지 생산액이 돼지 출하 감소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독일 연방농업정보센터는 지난해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의 생산가치가 총 350억 유로이며 이 가운데 돼지가 89억유로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돼지의 경우 돼지고기 공급이 5% 줄었지만 이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면서 톤당 가치가 2천273유로로 18%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는 개체수와 가격 모두 내림세를 보이며 생산액은 45억 유로로 5% 감소했다.

우유는 145억 유로로 전년 대비 13.4% 줄었지만 축산 가운데 가장 많았다.

아시아

**중국, 돼지 줄이더니...불황 끝날까
자돈수 감소세...농업부, 2분기 시장 호전 전망**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의 돼지고기 시장이 올 2분기부터 호전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계속된 사육규모 감축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의 농업농촌부는 지난달 23일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돼짓값이 낮고 양돈



농가들이 오랫동안 적자를 보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돼지 생산능력이 점차 합리적인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2분기 시장 상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 양돈업계는 생산이 늘고 소비는 저조해 어려움이 컸다. 23년 돼지고기 생산량이 5천794만톤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 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돼짓값은 낮아 양돈농가들은 작년 돼지 두당 평균 76위안(1만4천원)의 손실을 봤다. 이 같은 적자는 14년 이후 처음이다.

그리고 당분간은 지금의 불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농업부 모니터링 결과 12월 기준 대규모 양돈장에서 향후 1~2개월 내 출하될 비육돈 두수는 전년 대비 3.7% 많았다. 또 시장 상황도 여전히 좋지 않아 춘절 이후에도 농가 손실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농업부는 지적했다.

하지만 농업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자돈 두수가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2분기부터 호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농업부는 이와 관련, 생산이 많고 농가의 손실이 계속되는 문제에 대응, 모든 지역에 돼지 생산능력 규제를 강화했으며 생산 능력 축소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실제 지난해 12월말 모돈 두수는 4천142만마리로 일년전보다 248만마리가 감소했다.

농업부는 향후 돼지 생산의 안정적인 발전에 초점을 맞춰 세 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강화하고 조기 경보를 통해 돼지 생산능력을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전염병 감시 조사사업 등 질병 예방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러시아 돼지고기, 중국 시장 진출

러시아 돼지고기가 1분기 안에 세계 최대 돼지고기 수입국 중국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이나 미국 등 다른 수출국들로서는 중국 시장의 경쟁상대가 추가되는 셈이다.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달 24일 '러시아 수입 돼지고기 검사 및 검역 요건에 관한 공고'를 통해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러시아산 수입 돼지고기의 수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러시아 내 ASF 비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는 중국 수출이 가능하다.

외신에 따르면 이미 중국으로 돼지고기를 수출할 러시아 내 3개의 회사가 러시아 동식물위생 감독국에 등록을 마쳤으며 앞으로 2개월 안에 첫 선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러시아 내 최대 돼지고기 생산업체인 Miratorg도 중국 수출업체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당국이 러시아 내 돼지고기 공급 과잉을 피하기 위해 중국 수출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395만톤으로 5년전과 비교하면 25%가 증가했다. 러시아 내 돼지고기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더 큰 시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한해 돼지고기 수출규모는 23년 21만여톤으로 18년 3만7천톤과 비교하면 5년 사이에 5배 이상 성장했다.

아직 러시아가 중국 내 수입 돼지고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러시아 돼지고기 생산자 단체는 중국 수입 돼지고기 시장의 10% 가량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스라엘, 세계 최초 쇠고기 배양육 승인

이스라엘 스타트업 '알레프팜'

닭고기에 이어 쇠고기도 배양육 판매가 승인됐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스타트업 알레프팜은 정부로부터 배양육 쇠고기에 대한 판매 승인을 받았다.

해당 배양육은 '알레프컷츠'이라는 브랜드로 출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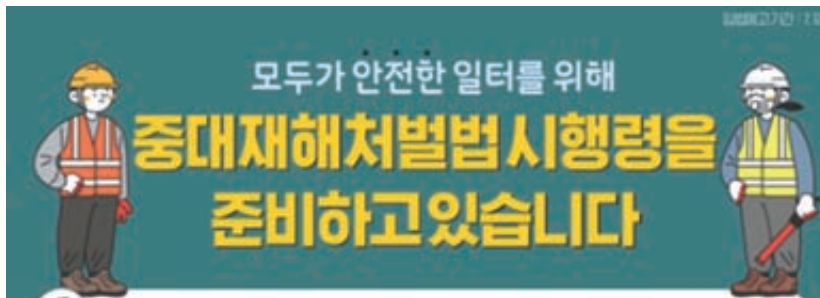
세계적으로 싱가포르와 미국에서 닭고기 배양육 승인이 이뤄진 바 있으나 쇠고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배양육은 '블랙앵거스' 소의 세포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정보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양돈장도 적용 사망 사고시 처벌 또는 벌금...질식 사고 예방 대책 시급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5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는 양돈장도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 21년 1월 산업 재해 등으로 수많은 사망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면서, 기업에서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에 정부는 법 제정 후 3년간 50인 이상 사업장을 적용한 이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확대했다.

이 법은 경영 책임자가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에 재해 발생 시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 기준은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및 동일한 유해 요인의 직업병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경영 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양돈장의 경우 사고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돈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중대재해는 황화수소 급성 중독 사고, 산소결핍증, 열사병, 지붕서 추락 등이다. 특히 매년 양돈

장에서 질식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가축분뇨 저장조 등 밀폐공간 내부로 들어가거나 작업시 안전작업·수칙을 준수해 산소 결핍 등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및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MSY 오르니 사료 요구율도 개선

한돈팜스 전문가 사용 농가 분석

지난해 농가 평균 사료 요구율(FCR)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돈협회가 운영 중인 한돈팜스의 100여 농가의 경영 기록을 분석한 성적 지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농가들의 출하 두당 평균 생산비는 44만원, 이 중 사료 비는 26만2천원으로 전체 생산비 중 사료 비중이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최근 1년 농가들의 평균 사료 요구율(체중 1kg 증가시키기 위한 사료량)이 전년 대비 눈에 띄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사료 요구율 평균은 3.11로 전년 동기 3.30보다 약 0.20 크게 감소한 것. 선진국(2.7~2.8)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최근 몇 년간 3.30을 유지했던 점에 비춰볼 때, 감소 폭이 큰 것은 이례적이다.

이 같이 그동안 요지부동이었던 사료 요구율 향상된 배경에는 전반적인 농장 생산성 증가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료 요구율과 MSY는 밀접한 관계가 형성, MSY 증가 시 사료 요구율이 대체로 개선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돈팜스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MSY는 18.8두로 전년 대비 0.4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돈업계가 고생산비 시대 농가 단위에서 사료 허실을 관리 철저를 적극 홍보한 점도 사료 요구율 감소에 한 몫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장의 한 전문가는 “국내 사료요구율이 현재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2.8로 낮아졌을 때 출하 시까지 두당 사료비는 약 2만~3만원 절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료 요구율 감소를 위해서는 허실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정기적인 소독 실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는 소독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고영양의 사료를 급여하더라도 사료효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 특히 시설이 노후한 농장일수록 사료 급여량이 증가할 우려가 크므로 생산비 감소를 위해서는 양돈장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1인당 육류 소비량 60.6kg 달해 쌀 소비량 56.4kg보다 많아...격차 더 커져

고기 소비량이 쌀 소비량과의 격차를 계속 벌리고 있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3년 1인당 육류 소비량은 60.6kg으로 22년(59.8kg)보다 0.8kg(1.3%) 늘었다. 1월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3년 1인당 쌀 소비량 56.4kg보다 4kg 이상 많은 양이다. 쌀 소비량은 22년 고기에 추월당한 이후 더 줄고 고기는 더 증가하며 그 차이가 더 커진 것이다.

이 같이 지난 30년간 쌀은 절반 이하로, 고기는 곱절 넘게 늘면서 각자의 위치가 바뀌었다. 국내 경제 성장과 이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 변화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통계이기도 하다. 특히 육류 소비가 명실공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식인 쌀 소비량을 넘었다는 점에서 육류가 대표 먹거리로서 자리매김했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국내 육류(소·돼지·닭) 평균 자급률은 92년 87.6%에서 21년 67.3%로 줄었다. 지난해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수입이 모두 증가하면서 자급률은 이보다 더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지난 2000년부터 육류 자급률은 60%대에 머무르고 있다.

1월 수입 4만톤 넘어...전년비 36% 급증 앞다리 41% ↑ 삼겹·목심도 늘어

할당관세 종료가 무색하게 새해 첫 달부터 돼지고기 수입량이 급증세를 보였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월 돼지고기 수입량은 4만톤으로 전달 3만3천톤보다 22.3%, 지난해 동월 2만9천톤에 비해 36.4% 각각 증가했다. 설 연휴가 있었던 작년 1월과 견줘 올해 작업일수가 더 많았던 영향도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증가폭이 컸다. 지난해 6월(4만1천톤) 이후 한달 수입량으로는 가장 많았다.

1월 수입량 가운데 냉장은 2천770톤, 냉동은 3만7천600톤으로 일년전과 견줘 각각 19.5%, 37.8% 늘어 냉동육 위주로 수입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돈 출하도 적지 않은 가운데 돼짓값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하락세로 접어들었음에도 이처럼 수입이 증가한 점은 적지 않은 우려를 던지고 있다. 특히 국내 경기 불황 속에 값싼 수입육 시장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닌지가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다.

부위별로 보면 거의 모든 부위의 수입이 증가한 가운데 삼겹과 앞다리가 모두 1만5천톤씩 들어왔다. 일년전과 견주면 삼겹은 24.7%, 앞다리는 40.7% 증가하며 앞다리가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목심도 7만900여톤으로 일년전보다 68% 늘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만7천톤으로 일년전보다 무려 77% 급증했으며 스페인은 7천800톤으로 일년전과 견줘 2.6% 소폭 증가했다. 또 지난해 할당관세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캐나다산은 4천300톤으로 일년전보다 60% 급증했다. 10월 수입이 재개된 독일산은 한달 100여톤이던 재개 초기물량보다 10배 이상 많은 1천700여톤이 들어오며 빠르게 물량을 회복하는 추세를 보였다.

양돈장 매년 100개 이상 문 닫아 통계청 4분기 가축동향 조사결과 발표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4분기 가축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23년 12월 기준 돼지 사육두수는 1천 109만마리로 전년 동기보다 0.3% 감소했다. 연말 기준 21년 1천122만마리에서 22년, 23년 2년 연속 감소하기는 했지만 줄곧 1천100만마리대서 큰 폭의 변동은 없었다. 돼지 두수 통계가 돼지 이력제를 기반으로 변경된 지난 17년 이후 12월 기준 1천100만두대를 벗어난 적이 없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양돈장수는 계속 줄고 있다. 12월 기준 5천634개로 전년 대비 1.1% 줄었으며 17년 6천313개와 비교하면 10.8%가 감소했다. 그 사이 양돈장 10곳 중 1곳이 문을 닫았다는 얘기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1천두 이하 양돈장은 더 빨리 사라졌다. 지난해 12월 기준 1천마리 이하 돼지를 기르는 양돈장수는 2천311개로 일년전보다 1.4% 감소했으며 17년 2천 955개와 비교하면 무려 22%가 적었다.

이는 소규모 일수록 강화되는 각종 규제와 시장 불안, 생산비 변동과 같은 경영 불확실성에 더 취약한 탓이다. 특히 연도별로 감소추이를 비교해보면 1천두 이하 규모 양돈장은 지난 21년과 22년 전년 대비 각각 7.8%, 7.3%씩 급감했다. 21~22년은 돼짓값 상승과 함께 생산비도 계속 올랐던 시기였다.

특히 생산비 상승 부담이 최고조에 달했던 22년은 1천~5천두 규모 양돈장수도 감소했다. 이를 볼 때 올해 고금리에다 돼짓값도 하락하며 경영환경이 더욱 취약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양돈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농가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지역별로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돼지가 줄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충남은 229만6천마리로 일년 전보다 1% 증가했다. 이로써 충남이 돼지 사육두수 1위 자리를 지켰으며 전국 돼지 두수 가운데 충남이 사육하는 돼지 비중도 20.7%로 소폭 늘었다. 그러나 충남도 22년 두수가 감소한 바 있어 21년(232만마리)과 비교하면 역시 두수가 적었다. ASF 이슈가 있었던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75만마리로 21년(173만마리)에 비해서는 많았다. 하지만 180만두대까지 늘었던 돼지 사육 두수는 지난해 다시 2% 감소했다.

이 밖에 ▲강원도=45만마리(-4.5%) ▲충북도=61만4천마리(-1.5%) ▲전북도=136만8천마리(+0.6%) ▲전남도=118만3천마리(-0.9%) ▲경북도=132만7천마리(-7%) ▲경남도=128만마리(-0.2%) ▲제주도=54만3천마리(+2.6%)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돼지가 감소했다. 또 지난해 두수가 증가한 전북과 제주도 역시 충남과 마찬가지로 21년(139만마리, 54만8천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근로자 신청 개시”

E-9비자, 1회차 농축산업 4,209명 신청 진행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올 전망이다. 이에 양돈현장도 구인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치솟던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도 진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월 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24년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총 발급 규모는 3만5천 명이며, 농축산업 고용 허가는 3만5천명 중 12% 수준인 4천209명이 배정 받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 5천명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고용허가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연간 도입 규모의 30%가량을 이번 1회차에 배정됐다. 이번 1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2월 28일에 발표, 발급은 농축산업의 경우 3월11일~1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같이 올해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양돈 현장도 인력난에 다소 숨통이 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치솟던 인건비도 다소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돈 현장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 발생 이후 외국인 노동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여서 인건비가 폭등했지만, 지난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많아지면서 구인난도 다소 해소가 되고 있다”며, “특히 올해 새로운 구직자를 농장에 들일 수 있어 인건비 부담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일가재단 통일장학위원회 탈북대학생에 장학금 전달

재단법인 일가재단 통일장학위원회(위원장 이범호, 돈마루 대표)는 지난 1월 27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밀알학교 일가홀에서 모두 17명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가나안농군학교의 설립자인 일가 김용기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일가재단은 사회에 공헌도가 큰 농업관계자와

청년농업인, 봉사자들에게 해마다 시상을 하고 있으며 특히 통일 장학회는 탈북민 출신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을 돕고 통일 후 선한 영향력을 펼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매년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통일장학회는 장학금 외에도 학생들에게 가나안농군학교 교육, MT, 개별멘토링, 도서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장학금의 상당 부분이 양돈농가 및 축산단체들을 통해 조성되고 있어 양돈인들의 끊임없는 후원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가 되었다.

흠어져 있는 내 축사 정보, 한곳에서 확인하세요"

축평원, '축산정보e음' 개편해 농가에도 제공

"흠어져 있는 내 축사 정보 한곳에서 확인하세요."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1월 26일 축산 농가 대상으로 농장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통합농장정보' 조회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통합농장정보 조회 서비스는 기존 '축산정보e음(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liis.go.kr)' 서비스를 개편한 결과로, 각 유관기관에 등록된 농장 사육지 주소와 방역 상태, 사육 방식 등의 정보를 통합해 조회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처음 오픈한 축산정보e음은 축산 관련 허가·이력·방역 등 유관기관별로 분산된 정부의 각종 데이터를 통합해



한데 모아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주로 정부 정책지원과 방역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업무 담당자가 활용해 왔다.

이번에 개편된 서비스는 축산 농가로 대상을 확대, 통합농장조회 기능을 제공하며 농장 사육 밀도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과 정부·지자체 합동점검반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농장을 점검한 33개 항목의 결과 조회 기능을 제공해 효율적으로 농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외에도 기상청 날씨 예보와 국립축산과학원의 가축더위산식을 적용해 축종별 가축더위지수를 5단계로 구분해 제공, 농장주가 폭서기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이력제 신고' 앱을 내려받아 본인인증 후 활용할 수 있다.

박병홍 원장은 “앞으로도 축평원이 축산분야 데이터 중심기관으로 축산정보e음이 농가에 더 편리하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우려 축분뇨처리업체 “기사로 자격국한 고용 부담 더 커져”

정부가 가축분뇨 처리업 허가 기준의 일부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방침대로라면 오히려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마련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기술인력 요건 등 가축분뇨 관련 영업 허가 기준의 일부 완화 계획을 밝혔다.

이에따르면 가축분뇨 수집 운반업의 경우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이 1인 이상으로 조정된다. 가축분뇨처리업도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등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환경산업기사 중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가축분뇨 처리업 허가시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술인력 확보 의무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하지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중심으로 한 가축분뇨 처리업체에서는 환경부의 개정안이 인력확보 부담을 가중시키는 독소조항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동자원화시설의 한 관계자는 “확보해야 할 기술인력 숫자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지금과 달리 무조건 ‘기사’ 로 자격조건을 한정, 고용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공동자원화시설 관계자는 “개정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당장 기존 직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 도대체 현장을 이해하는 대책인지 알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여론 못매 과지방 삼겹살 품질, 정부가 살핀다 정부, 가공·유통업체 특별 점검키로

결국 정부가 한돈 삼겹살 품질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최근 다시 과지방 삼겹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성수기를 맞아 출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것에 대비해 오는 8일까지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에 대해 품질관리 실태 특별점검·지도를 실시한다. 특히 이 기간 지역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전국 230여개 가공장과 1천500여개 판매장 전체에 대해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작업자 특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농축산부는 지난해 6월과 12월에 돼지고기(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가공유통업체에 배포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과지방 삼겹살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이에 농축산부는 이번 특별 점검 지도 이후에도 3월 삼겹살데이, 5월 가정의 달 등 한돈 수요가 많은 시기를 중심으로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품질관리 점검 지도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또 품질관리 미흡 업체에 대해서는 시설 운영자금, 브랜드 인증 등 지원사업에서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등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한돈'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표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한돈' 인증점에 대해 삼겹살 품질관리 실태 점검·지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한돈 브랜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산 종돈 못미덥나...양돈장 F1 직수입 급증

종돈은 물론 F1까지 직접 수입하는 양돈장이 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 모두 3천912두의 돼지가 수입(통관 기준)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종돈'으로 혈통등록이 이뤄진 물량은 2천996두. 나머지 916두도 사실상 종돈용으로 수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국적 종돈업체에서 종돈으로 활용되면서도 국내에선 '순종'으로서 혈통등록이 불가능한 일명 '하이브리드돈' 420여두가 2개 종돈업체에 의해 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 양돈컨설팅 전문업체에서 고객 양돈장에 공급하기 위한 200두, 충남 소재 신규 양돈장의 증식용 300두 등 나머지 500여두는 모두 덴마크산 F1으로 추정됐다.

이들 F1도 분양 양돈장에서는 비육용 자돈 생산이 아닌, 렌드레이스와 퇴교배를 통한 F2 생산용으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역 예방접종 미흡 농가 연 2회 검사

검역본부, 구제역 예방접종 관리 강화...과태료 최대 1,000만원

올해부터 구제역 예방접종 미흡 농가는 사육 가축에 대해 구제역 백신 항체 검사를 연 2회 받아야 한다. 종전엔 연 1회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4년도 구제역 혈청예찰사업 세부 실시요령'을 일선 가축방역기관에 배포했다고 1월31일 밝혔다.

이번 세부실시요령은 과거 구제역이 발생했던 대다수 농가들의 예방접종이



미흡했던 점을 고려했다. 농장·도축장의 항체검사를 강화해 예방 접종이 철저하게 이뤄지는 데 중점을 둔 배경이다.

소 자가접종 농가는 최근 3년간 백신항체양성률 기준으로 우수농가(90% 이상), 상대적 미흡 농가(80%~90%), 미흡농가(80% 미만)로 구분된다.

미흡농가는 연 2회 검사, 상대적 미흡농가는 연 1회 검사, 우수농가는 해당 농가의 22%만 무작위 검사하는 등 검사 횟수를 차등 적용한다. 미흡농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 것이다.

또한, 민간검사기관의 백신항체 도축장 검사 물량을 기존 연간 1만마리에서 10만마리로 대폭 확대한다. 농장검사를 보완하기 위해 민·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염소 자가접종 농가도 소 자가접종 농가와 동일하게 농가당 검사 두수를 기존 5마리에서 16마리로 늘린다. 또 항체양성률 미흡 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이다.

김철 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보다 효과적인 구제역 혈청 예찰을 위해 관리체계를 개선했고 민간 검사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유입될 위험이 있는 만큼 구제역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배합사료값 하락 전망

농식품부·축평원, '글로벌 곡물시장과 국내·외 사료산업' 보고서

글로벌 곡물가격이 하향세를 이따면서 앞으로 3~5개월 후 국내 배합사료 가격이 8~10%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올초 발간한 '글로벌 곡물시장과 국내·외 사료산업' 보고서에서 글로벌 곡물가격이 '공급 차질(Supply Disruption)'을 탈피해 당분간 하향 안정화가 예상된다고 1월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배합사료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여건을 고려하면 향후 3~5개월 뒤에는 국내 배합사료 가격이 8~10%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축산물품질평가원은 올초 발간한 '글로벌 곡물시장과 국내·외 사료산업' 보고서에서 글로벌 곡물가격 하향세로 인해 국내 배합사료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업계에 따르면 배합사료 가격에 곡물·유가 등 원재료값이 미치는 영향은 70%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배합사료 가격은 원재료인 곡물을 해상 운송 벌크선에 선적할 때 산정된다. 이 때문에 원료 곡물 가격은 3~5개월의 시차를 두고 배합사료 가격에 반영된다.

축평원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정리된 적 없던 국내·외 사료산업에 대해 분석한 자료로, 생산자와 관련 기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액비 '추비' 사용 길 열려 연중 살포 기대

시설하우스 살포시 로터리 작업 제외

가축분뇨 발효액비(이하 액비)의 용도로 '추비'(웃거름)가 새로이 떠오르고 있다.

'자원화'에서 '에너지화'로의 가축분뇨 정책기조 변화 속 정부 지원 감소, 각종 규제 확대에 인한 액비 살포 중단 위기 등 벼랑 끝에 내몰려 왔던 한돈농가와 자원화 조직체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월부터 추비용 여과액비에 대한 시비처방서 발급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관련규정 개정 이전 까지 추비용 액비의 시비처

방서 발급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데 이는 후속조치다.

이전까지는 추비용 액비에 대한 시비처방서 발급 자체가 불가능, 경종농가가 희망해도 사용할 수 없었다. 추비가 필요한 시설작물용 하우스의 경우 차량을 이용한 액비 살포가 적합치 않을 뿐만 아니라 부유물로 인해 관비시설 활용도 어려운 만큼 '액비는



기비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상식화, 그 기준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원도 철원과 횡성에서 이뤄진 시설작물에 대한 액비 적용 시범사업 결과 화학비료를 90% 이상 대체할 수 있음이 확인되면서 정부와 관계기관 등이 본격적인 제도개선에 나섰고,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환경부가 시설원에 및 과수에 대한 액비 살포시 로터리 작업을 하지 않도록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연중 1회 살포가 이뤄지는 기비(밀거름)용만으로 사실상 그 용도가 한정돼 왔던 액비 시장과 자연순환농업이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됐다.

여과 과정과 관비공급 등의 전제가 따르기는 하지만 연중 살포가 가능한 전국의 시설작물 재배지를 액비의 새로운 수요처로 만들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었다는 평가이다.

경남도, 축사 전기 안전검사·설비보수 비용 50% 지원 농가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50% 지원

경남도는 축사 내 누전·열선 과열 등 전기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안전 검사비와 설비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올해 1억2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축산농가에서 전기 안전시설 점검·검사에 드는 수수료와 노후화된 전기 설비를 보수·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도내 축산농가이다. 노후 정도가 심하거나 전기 사용이 많은 농장 등 화재 위험도에 따라 시·군 실정에 맞게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내용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 정기 검사 수수료, 검사 후 불량 전기시설 보수 비용, 사전 예방 차원에서 수리한 비용 등으로 농가당 최대 3백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축산 규모가 커지고 겨울철 축사 내 전기사용량이 많아져 화재 발생 위험과 화재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만큼 이번 사업은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예방 차원에서 마련됐다. 손영재 경남도 축산과장은 “최근 전기로 인한 축사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그 피해도 커지고 있어 전기안전 점검과 보수가 중요하다”면서, “축사 화재 예방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 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축사 화재는 총 42건이며 이 중 전기로 인한 화재는 21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남 첫 PED 주의보...차단 방역에 만전을

올 겨울 경남에서 첫 PED(유행성설사병) 발생 주의보가 발령됐다.

경상남도는 최근 도내 양돈 농가 곳곳에서 돼지 유행성 설사가 잇달아 발생해 PED 발생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의보 발령은 올 겨울 김해시를 시작으로 의령군, 함안군, 함천군 등 4개 시군 8개 농가의 돼지 1천710두에서 돼지유행성설사가 발생해 확산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렸다.

돼지유행성설사는 겨울에서 봄까지 발생하는 계절적 질병이다. 최근 기온이 급강하해 돼지들에게 겨울철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이로 인한 면역 저하가 일어나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새끼돼지의 경우 구토와 수양성 설사를 일으키고, 특히 1주령 미만의 포유 자돈은 50% 이상 폐사한다.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해 우리나라에서는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PED 예방을 위한 차단 방역 강화를 농가들에게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PED 피해를 막으려면 분만 전 어미돼지를 대상으로 백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기별 백신 접종을 철저히 해 초유를 먹는 새끼돼지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해 외부 오염원 유입을 막아야 한다. 농장 입구에서 고정식 차량 소독기를 통해 차량 소독을 1차 실시하고, 다시 고압 분무기를 이용해 세척 및 추가 소독까지 하는 2단계의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농장 내외부와 기구, 작업복, 신발 등의 세척과 소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요즘처럼 한파로 인한 동결로 소독이 어려운 때에는 오후 두 시경 날이 풀리는 시간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특히 가축을 입식 시에는 거래 농장의 방역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격리 돈사에 일정 기간 계류하고 이상이 없는지 관찰한 후에 농장 내부로 입식 해야 한다.

알고 보면 꼭 필요한 한돈농가 '휴지위험보장' 특약 농장 재해보험, “'휴지위험보장' 특약 확인해보세요”

대부분 양돈농가들이 가축재해보험에서 특약 사항 중 질병이나 폭염 특약은 가입되어 있는 반면, '휴지위험보상' 특약은 잘 몰라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특약에 가입할 경우에 축산업을 중단 혹은 휴지했을 때 생긴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NH농협손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상품을 살펴보면, 축산휴지위험보장에 따라 보통약관 및 특약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인한 경영손실 손해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 10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구분		보장범위(보상하는 사고)		보장내용	
돼지	주계약	돼지	● 풍·수해, 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 ● 사고 발생시 동물사체 등 잔존물 처리비용 등 기타 협력비용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95%, 90%, 80% 보상 중 선택	
			축산휴지위험 보장	● 보통약관 및 특약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인한 경영손실 손해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100%까지 보상
	특약	전기적장치 위험보장	● 전기장치 고장에 따른 가축 손해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90%, 80%, 70%, 60% 보상 중 선택 (단, 선택한 자기부담금과 200만원 중 큰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폭염재해보장 추가특약	● 폭염에 의한 가축 피해 보상		
		질병위험보장	● 질병(TGE, PED, ROTA)에 의한 손해 ※ 신규가입일 경우 가입일부터 1개월이내 질병관련 사고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협정보험가액	● 협의평가로 보험 가입한 금액을 시가와 관계없이 가입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평가		
축사		축사 보통약관	● 화재, 풍수해, 설해, 지진에 의한 손해	- 가입시 선택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 - 풍수재, 설해, 지진의 경우 최소 자기부담금 50만원	
		설해부담보특약	● 설해 담보 제외	-	
		화재대물배상특약	● 축사 화재로 인접농가 피해 시 손해 보상	-	
		구내폭발위험보장특약	● 축사 구내에서의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	-	
		동물복지인증계약특약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농림축산검역본부)시 5% 할인	-	

보험자가 축산휴지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액 산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종빈돈 × 10 × 1두당 비육돈(100kg 기준) 평균가격 × 이익률 (다만, 후보돈과 임신, 분만 및 포유 등 종빈돈으로서 기능을 하지 않는 종빈돈은 제외한다.) 포천의 한 양돈농가는 “작년부터 휴지위험보장 특약이 새로 생겼는데, 화재 등으로 모돈이 폐사했을 경우 농장에서 후보돈을 들여 정상적인 생산에 관여할 때까지 휴식기간을 보상해 주는 특약이다. 하지만 농가 대부분이 모르고 있어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사별로 특약 보상내용이 상이할 수 있어 가입 전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한편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전 축종)은 2023년 기준 94.4%이며 가입두수는 290,820천두 수준이다.

농협중앙회장에 강호동 조합장 당선

농협중앙회 제25대 회장에 강호동 후보가 당선됐다.

지난 1월 25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지역 농·축협 및 품목조합의 조합장 등 선거인 1,111명 중 1,09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시 총회에서 2차 투표까지 이어진 끝에 강호동 후보가 전체 유효 투표권 수 1,247표 중 781표를 얻어 농협중앙회장에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는 황성보, 강호동, 조덕현, 임명택, 송영조, 이찬진, 정병두 후보(기호순) 등 7명이 후보로 출마했고, 1차 투표에서 과반수 표를 얻은 후보가 없어 1, 2위를 차지한 강호동 후보와 조덕현 후보가 결선투표에서 다시 경합을 벌인 끝에 당선인이 결정됐다.

강호동 당선인은 농협중앙회 이사, 농협경제지주 이사, 농민신문사 이사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울곡농협 조합장, (사)한국 딸기 생산자 대표조직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농협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을 이끌어 왔다.

강 당선인은 앞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농·축협 경제사업 활성화 ▲품목농협 전문성 강화 ▲교육지원 부문을 '농·축협 총력지원센터'로 혁신 ▲농협금융의 정체성 확립으로 '범농협 수익센터' 위상 정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배달 폭발 원산지 확인해보세요"

농관원, 올해 첫 정기단속 실시

배달앱 등 통신 판매되는 농축산물의 원산지 위반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에 따르면 전체 농식품 원산지 위반 사례 중 통신판매 비율은 지난 19년 6.9%에서 2020년 19.9%로, 그리고 지난해 25%까지 증가했다. 코로나19 시작과 함께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외식이나 농축산물도 배달앱이나 인터넷을 통한 구매 비중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농관원은 2024년을 통신판매에서 원산지 표시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자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마련했다.

통신판매 원산지 관리 계획의 주요내용은 첫째,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가 강화되도록 현재 운용 중인 사이버단속반을 확대하고('23년 300명 → '24년 350), 온라인 유통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등 젊은 층을 명예감시원에 많이 참여토록 했다.

둘째, 원산지 표시 관리가 미흡한 배달 앱, 인터넷 구매대행업체(해외직구)의 상시 사전점검, 입점 업체 교육 등을 실시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최초로 3월에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필요시 기획단속을 겸한다.

셋째, 통신판매중개업체(플랫폼)와 합동으로 입점업체 대상 모니터링과 점검을 실시하고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사례 전파 등 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통신판매에서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체 및 플랫폼 업체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함께 당부했다.

양돈 계열화 35% 육박

전문화·규모화되며 기업 주도 아닌 농가 중심 증가

육계에 이어 양돈에서도 계열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 주도의 육계와 달리 한돈은 농업법인 중심의 계열화가 주를 이룬 것으로 분석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23년 축산 유통의 이해’ 책자에서 축산 계열화의 개념과 배경에 대해 조사 분석한 내용을 실었다. 책자에 따르면 축산 계열화는 결합 형태에 따라 수직계열화와 수평계열화로 나뉜다. 전후방 산업종사자나 산업간 결합을 수직계열화라고 하며, 동종 산업이나 종사자끼리의 결합을 수평계열화라고 정의했다.

이에 양돈의 경우 계열화의 역사는 1970년대 삼성그룹이 용인에 대규모 양돈단지를 건설하고 뒤이어 육가공장을 건설해 햄과 소시지 등을 제조하는 수직계열화의 모습을 갖게 되었으며, 이후 많은 기업들이 양돈업에 진출했다고 서술했다. 삼성그룹의 제일제당농장, 럭키그룹 연암 축전농장, 두산그룹의 두산개발농장, 해태그룹의 해태제과농장, 사조산업의 부경농장, 삼호물산의 산정농장, 미원그룹 제일농장, 선진그룹 제일종축 등이다.

이후 1990년 축산법에 양계업과 양돈업에 대기업의 사육업 진출을 규제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대부분의 대기업은 양돈업에서 철수했고, 축산법에서 허용하는 위탁사육 형태의 수직계열화가 시작됐다. 이후 2000년대 중반 이지바이오그룹, 하림그룹, 사조그룹 등 양돈수직계열화업체들이 자회사 중 일부가 양돈장을 직접 건설하거나 농가로부터 매입해 직영 양돈장을 운영하는 사례 증가함에도 양돈의 경우 계열화 비율은 15% 미만으로 추정됐다.

그러다 2017년 이후부터 양돈에서도 계열화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 계열화 달성률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4.4%를 기록, 17년 대비 20%p 급증한 것. 이는 일반 양돈

농가들이 역할 분담을 통해 모든 사육과 비육돈 사육으로 전문화가 이뤄지기 시작했고 이들 양돈 농가들이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 위탁사육 방식으로 양돈장을 공동경영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계열화율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축평원은 양돈의 경우 계열화율이 15% 미만으로 형성되다가 대상이 확대되면서 30%대 까지 오르긴 하였으나 그 비중이 크지 않고, 가족 경영이나 농가간 협업체인 조합의 경우는 큰 분쟁 또한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현재 기업이 양돈장을 매입하여 사육분야에 진입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 현행 위탁사육만을 계열화사업자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는 것을 사료나 육가공 기업의 직영 농장으로 확대하여, 현황 파악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양돈조합 패커 한돈 '거상'으로 입지 다져

지난해 도축물량 1~3위 장악, 전체 도축물량 중 17.4%

전국의 양돈조합이 한돈 시장에서의 입지가 넓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양돈조합 패커 시설 3곳서 도축물량 순위 1~3위를 휩쓸었다. 아울러 지난해 전체 양돈조합 도축장 출하 비율이 전체 17.4%로 매년 점유율을 높이면서, 한돈 시장에 양돈조합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작업장별 도축물량이 가장 많았던 10곳의 도축장은 ▲통하부경=83만3천605두 ▲도드람김제FMC=67만9천460두 ▲포크빌공판장=67만8천874두 ▲팜스토리 한냉=65만7천750두 ▲해드림=64만1천706두 ▲도드람안성LPC=62만489두 ▲논산계룡축협=59만9천505두 ▲홍주미트=59만3천816두 ▲우경=58만812두 ▲농협목우촌 김제=50만8천203두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상위 10개 도축장 중 양돈조합 보유 패커 시설이 1~3위를 기록하면서 한돈 시장에 거상의 지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양돈조합의 도축 점유율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면서 더욱 증가했다. 작년 전체 돼지 등급 판정 두수는 1천937만8천133두로 이 중 양돈조합 보유 도축장에서 325만6천558두를 기록, 전체 도축두수 대비 양돈조합 도축 점유율은 17.4%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17.2% 대비 0.2%p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이 지난 2017년 이후 협동조합형 양돈 조합 패커 시설이 속속 완공, 한돈 시장이 활기가 띄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최신 시설의 도축장 및 육가공 시설을 갖추에 따라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으로 조성, 한돈 안전성 및 위생 제고에다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해

소비자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 구매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

특히 패커 도입 이후 양돈농가 판로확보로 농가 소득 향상과 직결되고, 전국 평균 돼짓값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면서 양돈조합의 입지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경기양돈농협도 최근 경기북부 지역에 축산물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양돈조합의 시장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 한돈시장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 임원 비농업인도 가능

농식품부,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 공포·시행

앞으로는 비농업인도 영농조합법인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는 앞으로는 농업인 조합원에서 선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농어업경영체법에는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했으며,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면 된다.

'농어업경영체'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사업 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도입하였다.

휴면 영농조합법인을 법원이 일괄적으로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 제도를 도입하고, 최근 5년간 변경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을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제도는 3년 후인 2027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경기도, ASF 방역 조치 모두 해제

1월 18일 파주서 ASF 발생 후 추가 발생 없어 방역 조치 해제

경기도는 지난 1월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내려진 파주, 양주, 연천 등 3개 시군 양돈 농가 57호에 대한 이동 제한 방역 조치를 2월 21일부로 모두 해제했다.

도는 이번 해제는 발생농장 가축 매몰 처리 완료일(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발생농장 환경검사와 방역대 농장의 사육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해제 조치로 해당 방역대에 있는 양돈농가 및 관련 축산 시설의 출입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 방역조치가 모두 풀리게 된다.

경기도는 감염 야생 멧돼지 등 오염원이 농장으로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농장 방역실태 점검, 돼지 출하·이동 시 사전검사, 양돈농장·차량·축산시설에 대한 소독 강화 등 방역 대책을 계속할 방침이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방역대 해제는 신속한 의심축 신고·검사 및 즉각적인 방역 조치와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발생지역 농가의 유기적 협조가 있기에 가능했다”면서, “야생 멧돼지에서는 계속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양돈농가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클 린 돈

돈사 슬러지 청소 전문업체



저장조



돈방피트



지하 저장조



가축분뇨 자원화센터

돈분뇨 슬러지 청소 전문

무료방문 견적 가능합니다.

☎ 문의 : 010-6621-0318



CJ Feed&Care

세일즈 어워즈 행사 개최, 고객 생산성 향상 전략발표
최고의 영업지구부장 '와일드캣'에 김봉석, 각상범 부장 수상
'컨설팅센터' 대상에 돈플러스컨설팅센터 최현준, 중주컨설팅센터 박창훈 대표 수상



▲ CJ 피드앤케어 세일즈 어워즈 행사 기념사진

CJ 피드앤케어(대표이사 김선강)는 지난 1월 18일 임직원과 컨설팅센터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략과 목표를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 세일즈 어워즈 행사를 가졌다.

CJ 피드앤케어는 글로벌 경기불황 및 경기침체와 비우호적인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고객 생산성 향상에 더욱 초점을 두고 축종 전문교육 및 2024년도 전략발표를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11월 새롭게 출범한 CCC(CUBE CONSULTING CLUB) 협의체와 함께 영업조직, 컨설팅센터, 고객들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CJ 피드앤케어는 지난 2022~2023년 기술중심 경영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함에 따라 각 축종별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했다. ▲양돈사료사업은 FCR의 개선을 통한 생산비 감축 ▲낙농사료사업에서는 착유우 및 1세 미만 두수 감소에 따른 유량 극대화 신기술 접목 ▲비육사료사업에서는 육질 1++ 등급과 No.9 출현율을 높여 어려운 한우농가 수익에 기여했다. 특히 CJ 피드앤케어의 양돈사료와 비육사료는 우수한 성적 및 육질 등급 출현율로 고객들에게 인정받아 사료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다.

김선강 대표이사는 “어려운 시장 환경속에서 한국사업의 지구부장과 컨설팅센터 대표들의 최선의 노력과 노고에 감사인사를 드린다. 올해에도 기술력과 품질에 기반한 가치판매로 국내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면서, “책임감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CJ 피드엔케어의 우수한 제품 가치를 고객들에게 잘 전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민수 한국사업담당은 “현재 어려운 축산업의 상황을 고객들과 함께 공감하고자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 전략발표를 하는 등 고객의 파트너로서 전문성을 함양하는 행사로 진행하게 되었다”며, “CJ 피드엔케어는 고객들의 생산성과 수익성에 더욱 만족을 드리기 위해 최고의 품질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임직원과 핵심 컨설팅센터의 성과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최우수 영업현장의 임직원을 시상하는 ‘와일드캣’에서는 2022년도 김봉석 부장, 2023년도에는 곽상범 부장이 수상했으며, 컨설팅센터 대상은 2022년 돈플러스컨설팅센터 최현준 대표, 2023년 충주컨설팅센터 박창훈 대표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그외 ‘골든클럽’, ‘그랜드세일즈 마스터’, ‘프레드’의 임직원 시상과 ‘우수상’ 컨설팅센터 시상도 진행했다.

CJ 피드엔케어는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글로벌 애그테크(AgTech) 기업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 문의 : 02-3660-0758

(주)카길애그리퓨리나

신임 대표에 박종억 사장 선임

‘고객 중심 경영원칙 바탕으로 동반성장’ 취임 일성

(주)카길애그리퓨리나가 2월 1일자로 신임 대표에 박종억 사장을 선임했다.

박종억 신임 사장은 카길애그리퓨리나 판매부장, 전략 마케팅 이사, 카길동물영양 사업부 동남아시아 전략마케팅/기술 리더, 말레이시아 지사장,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사장을 역임했다.

카길애그리퓨리나는 박종억 신임 사장이 고객과 사람 중심의 경영 마인드와 비즈니스 전략으로 명확한 의사결정과 실행을 통해 사업을 훌륭하게 리드했다는 평가 함께 성과를 인정받아 왔다고 전했다.

박종억 신임 사장은 “한국 축산 발전과 함께해온 카길애그리퓨리나에 합류하게 돼 자부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며, “카길애그리퓨리나의 고객 중심 경영 원칙을 바탕으로 고객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고객과 함께 성장하며 대한민국 축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길애그리퓨리나는 카길의 자회사 겸 한국 법인으로 1967년 한국에 진출하여 수준 높은 동물 영양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180개 특약점 및 사업소를 통해 축산농가에 700여 종의 고품질 배합 사료를 퓨리나사료, 뉴트리나 브랜드로 공급하고 있다.

■ 문의 : 031-710-6037



▲ 카길애그리퓨리나 박종억 신임 대표이사

(주)선진

‘2024 두로기 대리점 전진대회’ 개최

‘선진 두로기’ 90kg 도달일령 1주 앞당겨...농장 생산성 향상에 도움
정자분석기·실시간 온도관리로 품질관리 철저, 시장점유율 1위 목표



▲ 선진 두로기 대리점 전진대회에 참석한 선진 임직원과 대리점 대표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주)선진(총괄사장 이범권)이 공급하고 있는 고품질 정액 ‘선진 두로기’가 90kg 도달 일령을 앞당김과 동시에 엄격한 품질관리로 올해 시장점유율 1위 달성을 목표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선진은 지난 1월 19일 대전 호텔 인터시티에서 ‘2024 선진 두로기 대리점 전진대회’를 개최하고, 올해의 목표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선진 양돈사업본부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목표달성 협약식, 우수 대리점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2001년 선진영농에서 첫 생산·판매를 시작한 ‘선진 두로기’는 현재 전국 6개 총 600두 규모의 AI센터 (인공수정용액 생산농장)에서 꾸준히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선진 관계자는 “올해 ‘선진 두로기’는 시장점유율 1위를 목표로 고객과의 접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만들어지는 ‘선진 두로기’는 90kg 도달 일령을 앞당겨 전국평균보다 1주일 빠른 출하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이는 사료요구율(FCR)을 감소시키고, 돈사 회전율을 높여 농장의 경제적인 측면에 도움이 된다. 선진 두로기는 건강한 두록을 키워내는 선진 GGP를 통해 생산되며, 선진이 독점 계약하는 AI센터에서 공급하기에 생산 이력부터 믿을 수 있다.

특히 선진은 지난해부터 정자분석기(CASA)를 도입해 ‘선진 두로기’의 품질력도 강화했다. 정자분석기는 기존 현미경 검사에서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미세한 기형 정자를 분석해준다. 이를 통해 ‘정자의 운동 항목 측정 및 평가’, ‘기형정자 비율 분석’을 진행한다. 또한 양돈 선진국 기준을 벤치마킹하여 선진만의 제품 생산 기준도 세웠다. 선진 두로기는 기형정자 비율 30% 이하, 유효정자수 25억을 보장하며 품질 표준화를 이뤄내고 있다.

또한 ‘선진 두로기’의 배송 시스템은 고객 농장까지 일정 온도가 유지되어 도착할 수 있도록 실시간 온도를 관리한다. 배송 중에 온도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선진과 운송기사, 지역부장에게 즉시 알림이 가며 가까운 시센터에서 제품 교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고객 농장은 품질 저하의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제품을 배송받을 수 있다.

최승선 유전자 BU장은 “선진은 우수한 형질의 유전자 공급으로 국내 양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유전자 사업을 시작한 만큼, 높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고객농장의 성장과 함께 대한민국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 02-2225-0668

(주)팜스코

취약 계층 어린이들에게 ‘달콤한 사랑 나눔 활동’ 펼쳐 초콜릿과 젤리 기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 될 것”

(주)팜스코(대표이사 김남욱)가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어린이들의 졸업과 입학を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달콤한 사랑을 전했다.

이번 활동은 안성, 음성, 서울 지역 내 보육시설 4곳과 함께 강남푸드센터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총 1만개(약 1,100만원 상당)의 초콜릿과 젤리를 기부하여 어린이들의 얼굴에 미소를 선사했다.

김남욱 대표이사는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새로운 시작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팜스코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팜스코의 이번 ‘달콤한 사랑 나눔 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배려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게 만든다.

팜스코는 ▲사료사업 ▲신선식품사업 ▲육가공사업 ▲계열화사업을 하고 있는 축산식품전문기업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 문의 : 031-670-2747



▲ 팜스코 ‘달콤한 사랑 기부’

(주)농협사료

2024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협약식 개최 ‘중소가축사료 경쟁력 제고 및 판매확대’ 경영목표 달성 다짐



▲ 지난 2월 7일 농협사료 회의실에서 2024년도 경영협약식이 개최됐다.

(주)농협사료(대표이사 김경수)는 지난 2월 7일 본사 회의실에서 올해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경수 농협사료 대표이사는 중소가축분사장과 자회사인 농협 티엠알 대표이사와 경영협약을 체결했으며, 중소가축사료와 TMR 사료의 경쟁력 제고, 판매확대 등 경영목표 달성을 다짐했다.

농협사료는 경영협약을 통해 ▲축산농가 지원 확대로 협동조합 가치실현 ▲중소가축분야 자립경영시스템 구축 ▲상시 방역·안전관리로 신뢰받는 축산환경 조성 ▲미래축산업 선도를 위한 신사업 추진 등 부문별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수 대표이사는 “최근 가축전염병 확산과 축산물 가격하락, 물가 상승 등 대내외 불안요소가 지속됨에 따라 축산업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농협사료는 ‘축산농가의 힘이 되는 드림파트너’로서 사업 전반의 변화와 혁신으로 어려운 시장여건 속에서도 임직원이 합심하여 경영목표를 반드시 달성하자”고 당부했다.

■ 문의 : 02-6932-9734

흥성사료(주)

옥수수 후레이크 시설 투자 ‘가압식 챔버’, ‘드라이어·쿨러’ 구축, 가축 소화율 및 섭취량 증가 기대

흥성사료(주)(대표이사 정재윤)가 올해 최신 옥수수 후레이크 시설을 도입하며, 사료 품질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흥성사료는 최근 기존의 챔버 시스템 보다 원료의 소화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가압식 챔버 후레이크’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최신의 가압식 챔버 설비 외 네덜란드에서 직수입한 ‘드라이어·쿨러 시스템’을 추가 도입해 후레이크 품질 변이를 최소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축의 소화율과 섭취량 증가를 가져와 생산성 향상은 물론 미소화분을 획기적으로 줄여 수익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흥성사료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 심화로 인한 축산물 소비 위축과 농가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을 극복하고 고객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결국 사료 품질 제고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여 최신 시설을 도입하게 됐다”며, “고객농가들의 흥성사료 품질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위해 지속적인 시설 투자와 연구 개발에 더욱 힘써 양축농가와 함께하는 100년 기업이 되겠다”고 역설했다.



■ 문의 : 031-493-1321

천하제일사료

독서 경영으로 고객 가치 창조 이끌어 임직원 전문성·역량 강화로 차별화된 가치 기여

천하제일사료(대표이사 권천년)가 내부 독서 문화 이벤트를 통해 임직원들의 독서를 장려하고, 개인과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며 고객 가치 창조를 이끌고 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천하제일사료의 독서 경영 문화는 임직원이 책을 구입해 읽은 후 독후감과 함께 책을 회사에 제출하는 문화이다. 제출된 도서는 각 공장(북부·중부·서부·남부)과 축산기술연구소 도서관에 배치되고, 다양한

방면으로 기부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1석 2조 효과가 있다. 임직원들의 활발한 참여 속에서 약 2년 동안 741권의 도서가 취합되었으며, 올해 역시 전사적으로 내부 독서 문화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천하제일사료는 본사, 기술연구소, 4개 공장에 사내 도서관을 갖추고 주기적인 도서 구매를 통해 축산·경영·마케팅·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두루 보유하여 사내 독서 문화를 형성했다.

독서를 통한 간접 경험의 확대는 생각과 활동의 범위를 넓혀, 업무와 연결된 영역에서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등 임직원들의 다양한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직원들은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태도로 고객 가치 창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직원 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 사내 도서관을 주축으로 주기적인 독서 스터디, 토론으로 사고를 확장시키는 3인 학습과 동아리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다.

천하제일사료 인사총무팀은 “직원들의 독서 문화를 독려함으로써 각 분야의 전문성 확보가 이뤄지고, 이는 천하제일사료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 믿는다”라며, “앞으로도 독서 문화를 이어가 자유롭고 창의적인 소통의 장을 형성하고, 임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이끌어 차별화된 가치로 고객들에게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070-8640-4118



(주)한동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선정

혁신성·성장성 우수 평가 기업 의미...“100년 기업 향해 끊임없이 발전할 것”



▲ 충남 예산군 소재 (주)한동 예산공장 전경



친환경 동물용의약품 선도기업 (주)한동(대표이사 이원규)이 지난 1월 31일 벤처기업협회에서 주관한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에 선정됐다.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은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임을 인정 받았음을 의미한다. 한동의 슬로건인 ‘50년의 동행, 100년을 향한 도약’처럼 앞으로의 사업 성장성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이원규 대표이사는 “회사를 운영하며 임직원 모두가 서로 의지하며 적극적으로 임해준 덕분에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다”며, “55주년, 60주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 끊임없이 발전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동은 소화기·호흡기 질병에 탁월한 복합 향생제 ‘플로티’와 호흡기 질병의 초강력 치료제 ‘프로샷 300’ 등의 제품으로 양돈농가에 널리 사랑

받고 있으며, 낙산균을 통해 가축의 성장촉진 및 장내 유익균을 공급하는 한동 ‘미微-에스’, 소화기 질병에 사용하는 한동 ‘미微-산’, 축산환경개선제인 ‘아다폰’ 시리즈를 개발 생산하고 있다.

한동은 바이오연구소를 통해 신규 기술을 개발하고 가축의 생산성을 개선하는 유익균, 환경개선을 선도하는 고초균을 개발·발전시켜 축산인들에게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고 환경과 함께하는 선진축산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문의 : 02-406-3511

(주)고려비엔피

두곡리 마을에 8년 연속 명절 선물 전달로 지역 상생 강화 1사 1촌 행사 통한 지속적인 나눔과 소통으로 지역사회 발전 기여

올해로 8년째 두곡리 마을과 1사 1촌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주)고려비엔피(대표 민정훈)는 매년마다 마을 전체 가구 주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해오고 있다.

고려비엔피는 마을 경로잔치 등의 행사에도 마을의 선물을 준비해 전달하는 등 마을 주민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지역 상생 및 발전에 작게나마 기여하고 있다.

올해 설 명절은 제주도 한과 선물세트를 전달하는 1사 1촌 행사를 마을회관에서 가졌다.

1사 1촌 이외에도 회사 직원들

로 구성된 ‘나눔’ 동아리에서 독거노인, 결손 가정 등에게 작은 도움을 주며 의미있는 나눔 실천으로 훈훈한 정이 깃든 지역사회 조성에 동참하고 있다.

고려비엔피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을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마을과 기업이 소통하며 더불어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문의 : 031-478-5570



▲ 고려비엔피-두곡리 마을 설 선물 전달

우진비앤지(주)

미국 축산박람회 IPPE 2024 참가

제품 홍보 및 글로벌 마케팅 수행...북미·중남미 진출 박차



◀ 우진비앤지 관계자들이 부스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좌측부터 중앙 연구소 이성호 이사, 해외사업팀 석영이 부장, 강재구 대표, 마케팅 학술팀 강효곤 차장)

우진비앤지(주)(대표이사 강재구)는 지난 1월 30일부터 3일간 미국 조지아주의 애틀랜타에서 개최된 'IPPE 2024'에 참가해 제품 홍보 및 글로벌 마케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IPPE(International Production & Processing Expo)는 1949년부터 시작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축산·사료·육가공·기자재 박람회로, 1977년부터는 조지아 월드 콩그레스 센터에서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IPPE 2024에는 1,400여개 업체가 전시에 참여하여 최신 혁신 기술, 제품, 장비, 서비스를 널리 홍보하고, 분야별 교육 세션도 마련되어 알찬 행사로 진행됐으며, 3일간 3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우진비앤지는 박람회에 참가해 제품력과 기술력을 널리 홍보하고 많은 고객들과 소통하며 신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진비앤지 해외사업팀 관계자는 “이번 IPPE 2024 박람회 참가를 통해 축산업 최신 기술과 제품을 알아보고 해외 고객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면서, “북미와 중남미 등의 새로운 국가로의 진출 및 확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우진비앤지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를 높ی겠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에 힘차게 도약하는 2024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우진비앤지는 동남아, 유럽, 중동, 남미 등 전 세계 20여개국, 30여개 업체에 동물용의약품을 수출하고 있다.

■ 문의 : 02-795-2361

케민코리아(주)

케민아시아 '2024 킥오프' 미팅 개최

고객 니즈 파악 및 'ONE KEMIN' 강조...공동목표 달성 기대



▲ 지난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빈펄랜드마크 81호텔에서 케민아시아가 '킥오프 미팅'을 진행했다.

케민아시아(대표이사 Dr.Tan)는 지난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 동안 베트남 호치민 빈펄랜드마크 81호텔에서 '2024년도 킥오프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케민코리아(주)(지사장 이충한)를 포함한 약 160여명의 케민아시아 소속 3개 사업부(사료 첨가제·식품·펫) 직원들이 모여 올해 사업 방향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케민사 직원들은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의 입장에서 케민사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상황극을 연출하는 롤플레이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 니즈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원들에게 케민의 성장 마인드(Growth Mindset)를 소개하며 여러 가지 업무상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 극복하고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발상의 전환 방법에 대해 공유하기도 했다.

케민아시아 Dr.Tan 대표이사는 'ONE KEMIN'을 강조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직원 모두 하나가 되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의 : 031-713-1937

(주)엠트리센

‘제2연구소 및 축산신뢰성시험센터’ 가산디지털단지에 설립
품질·내구성·수명 등 충분한 시험검증...글로벌 시장 공략 준비
생산성·사람복지 향상, 센싱·인공지능·로봇 3축기술로 고수익 양돈산업 기대



▲ ‘제2연구소 및 축산신뢰성시험센터’에 설치된 엠트리센 제품 모습

◀ 엠트리센이 가산디지털단지에 설립한 ‘제2연구소 및 축산신뢰성시험센터’ 내부 전경

인공지능 로봇 기반 디지털 전환 토탈 솔루션 기업 (주)엠트리센(대표이사 서만형)이 사세 확장에 따라 서울시 금천구 소재 가산디지털단지에 ‘제2연구소 및 축산신뢰성시험센터’를 설립했다.

엠트리센은 새롭게 설립된 ‘제2연구소 및 축산신뢰성시험센터’를 통해 열악한 축사환경에서 충분한 시험검증을 거치지 못해 실제 농장에서 품질, 내구성, 수명 등 다른 산업제품에 비해 부족했던 문제를 비약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제2연구소 및 축산신뢰성시험센터’에 애그리 로봇을 개발할 수 있는 메카트로닉스 환경도 함께 구축함으로써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처리 결과를 작업자 대신 시스템과 애그리 로봇이 직접 실행하여 인력난이 심각한 축산업계의 유일한 대안인 농장 자동화에 다가설 예정이다. 엠트리센은 세계 양돈 최고 강국으로 알려진 덴마크 농수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딥아이즈’와 인공지능 임신사 정밀 체형관리시스템 ‘딥스캔’ 수출을 통해 유럽시장 공략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 엠트리센 임직원 단체사진

아울러 엠트리센은 '제2연구소 및 축산신뢰성시험센터'를 통해 기초 투자와 인프라 확장으로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대로 주력시장을 전환하여 '양돈 생산성과 사람복지'를 동시에 향상시키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만형 대표는 "엠트리센은 인력난이 가장 심각한 심야시간 분만사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애그리 로봇 개발에도 착수했으며, 최근에는 기능 구현이 가능한 수준까지 왔다"며, "센싱과 인공지능, 로봇의 3축 기술을 통해 양돈산업 종사자가 더 나은 삶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산업을 넘어 성장 가능한 고수익의 양돈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엠트리센은 지난해 처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개최된 '제1회 스마트축산 인공지능(AI) 경진대회'에서 인공지능 기반 분만사 정밀관리시스템 '딤아이즈' 제품으로 대상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 문의 : 02-6956-9462

(주)송강GLC

신형 초음파진단기 AS-200, SR-1C, SU-3 호응도 높아 올해 덴마크, 일본, 중남미 등 해외 수출 계획

(주)송강GLC(대표이사 심재국)가 지난해에 출시한 AS-200(컨벡스 무선 임신진단기), SR-1C(무선 소 임신진단기), SU-3(무선 소 육질진단기) 등 신형 초음파진단기 제품 군들의 높은 시장 호응도에 힘입어 해외수출 공략에 나선다.

송강GLC는 덴마크,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에 동물용 초음파진단기 3,603대를 수출한데 이어 AS-200 등 신형 초음파진단기의 긍정적인 시장 반응으로 올해에도 꾸준히 수출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강GLC 관계자는 "올해 덴마크, 일본, 중남미 등을 주요 타깃으로 적극적인 해외수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031-776-0780



▲ 송강GLC가 신형 초음파진단기 AS-200, SR-1C, SU-3을 출시했다.

동아지엔이(주)

올해 상반기 포유모돈급이기(Jyga Gestal F2) 3,000대 설치 예정
탄탄한 내구성, 모터 수명 10년 보장
설치농장 자료 홈페이지 공개



▲ 동아지엔이가 공급하고 있는 포유모돈급이기(Jyga Gestal F2)

동아지엔이는 고객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포유모돈급이기(Jyga Gestal F2)가 설치된 농장의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특히 GP농장 성적 1위를 기록한 가야육종 인술GP와 퓨리나사료 WSY 2500 위너스클럽 1위 농가인 경북종돈(500대 설치, 7년간 A/S 없음)도 동아지엔이의 포유모돈급이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동아지엔이(주)(대표이사 노옥래) 기자재 사업부가 올해 상반기에 포유모돈급이기(Jyga Gestal F2) 약 3,000대를 국내 양돈장에 보급하고 순차적으로 설치를 진행한다.

미국 내 모돈 규모 상위 35개 농장 중 19개 농장(Smithfields 포함)에서 사용하는 포유모돈급이기 Jyga Gestal 제품은 세계적으로도 많이 판매된 제품이다. 탄탄한 내구성으로 반영구적이며, 모터 수명이 10년까지 보장된다.



▲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포유모돈급이기(Jyga Gestal F2)

▶ 미국 내 모돈 규모 상위 35개 농장 중 19개 농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포유모돈급이기(Jyga Gestal F2)

Company/Headquarters	# Sows 2021	# Sows 2020
1 Smithfield Foods/Maple Grove, Minn./Iowa	849,000	849,000
2 Nealand Foods/Shawnee Mission, Mo.	333,000	340,000
3 Progressive Management/Hempstead, Mo.	285,000	274,000
4 Iowa Select Farms/Des Moines, Ia.	240,000	240,000
5 Carthage Systems/Carthage, Mo.	176,000	176,000
6 Heritage Farms/Clinton, Mo.	176,000	176,000
7 The Heartlands/Carthage, Mo.	176,000	176,000
8 JBS/Forney, CO/Nebraska	176,000	176,000
9 JBS/Forney, CO/Nebraska	176,000	176,000
10 Christensen Farms/Nebraska City, Mo.	165,000	165,000
11 Clonessa Country Live Family Farms/Nebraska, Mo.	165,000	165,000
12 The Foster Family of Companies/Nebraska, Mo.	165,000	165,000
13 JBS/Forney, CO/Nebraska	165,000	165,000
14 JBS/Forney, CO/Nebraska	165,000	165,000
15 JBS/Forney, CO/Nebraska	165,000	165,000
16 JBS/Forney, CO/Nebraska	165,000	165,000
17 JBS/Forney, CO/Nebraska	165,000	165,000
18 JBS/Forney, CO/Nebraska	165,000	165,000
19 JBS/Forney, CO/Nebraska	165,000	165,000
20 JBS/Forney, CO/Nebraska	165,000	165,000
21 JBS/Forney, CO/Nebraska	165,000	165,000
22 JBS/Forney, CO/Nebraska	165,000	165,000
23 JBS/Forney, CO/Nebraska	165,000	165,000
24 JBS/Forney, CO/Nebraska	165,000	165,000
25 JBS/Forney, CO/Nebraska	165,000	165,000
26 JBS/Forney, CO/Nebraska	165,000	165,000
27 JBS/Forney, CO/Nebraska	165,000	165,000
28 JBS/Forney, CO/Nebraska	165,000	165,000
29 JBS/Forney, CO/Nebraska	165,000	165,000
30 JBS/Forney, CO/Nebraska	165,000	165,000
31 JBS/Forney, CO/Nebraska	165,000	165,000
32 JBS/Forney, CO/Nebraska	165,000	165,000
33 JBS/Forney, CO/Nebraska	165,000	165,000
34 JBS/Forney, CO/Nebraska	165,000	165,000
35 JBS/Forney, CO/Nebraska	165,000	165,000
Total Sows of 20,819 Sows in 2021	4,327,635	4,327,635

이와 함께 농협종돈개량사업소 GGP 2개 농장, PIC 성적 최상위 4개 농장(우성, 비흥, 태봉, 청명), 도드람 양돈농협 성적 최상위 3개 농장(동이농장, 구룡축산, 명성농장), 운도축산(다비 GP) 등에서도 동아지엔이의 포유모돈급이기를 사용 중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올해 2월 캐나다 제네시스(Genesus) 종돈 280두 선발 작년 가야육종 생존산자수 17두 기록 등 우수성 증명 4월 약 330두 선발 등 국내 공급 계획



◀ 캐나다 제네시스 육종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DR 돈군

동아지엔이(주)(대표이사 노옥래) 종돈사업부가 2월에 이어 오는 4월 초에도 제네시스 종돈을 선발하여 국내에 공급할 예정이다.

동아지엔이는 지난 2월 26일 캐나다 제네시스(Genesus)사로부터 약 280두의 종돈을 선발하여 경북종돈, 국일농원, 구시월드GGP, 순천종돈, 유전자센터 3개소 등에 공급하였으며, 오는 4월에도 약 330두(확정 오더)를 선발할 예정이다.

동아지엔이는 2023년 국내 수입 종돈의 약 90%인 2,399두(한국종축개량협회 등록 기준)를 공급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순차적으로 약 1,100두의 제네시스 종돈을 수입한 가야육종 제2GGP에서는 현재 약 50% 정도가 분만했으며 생존산자수는 평균 약 17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지엔이 관계자는 “캐나다 제네시스 종돈은 강건성 및 능력은 물론 모든 부분에서 우수한 종돈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육질 면에서는 뛰어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면서, “제네시스 두록은 1,800두의 모돈수와 검증된 품종으로, 국내 AI센터인 가야육종 3개 AI센터(100두 이상), 김제 KPG, 당진유전자센터, 대전충남 양돈조합 유전자센터, 서부GNB(80두 이상), 백월유전자, 예산유전자센터 등을 비롯해 전 세계 주요 농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품종이다”고 강조했다.

- 문의 : 031-284-4611, 종돈사업부 노승찬(010-8955-2092), 기자재사업부 노옥래(010-9454-2092)
- 홈페이지 : www.dongagne.com(자료실), 이메일 : master@dongagne.com

(주)KCC콘크리트

우수한 콘슬라트 선택 위한 3가지 명확한 기준 제시

좋은 콘슬라트, 압축강도 50~60MPa, 휨하중강도 2톤 이상, 흡수율 2.5% 이하
고강도 제품 개발·생산과 합리적인 가격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



▲ KCC콘크리트가 개발한 신형 콘슬라트의 압축강도와 휨하중강도 테스트 모습

(주)KCC콘크리트(대표이사 김상현)가 양돈농가에서 좋은 콘슬라트 제품을 선택할 때 확인해야 할 명확한 선택기준을 제시해 양돈농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KCC콘크리트는 콘슬라트를 선택할 때 검증할 수 없는 각종 미사여구와 모호한 기준을 타파하고, 좋은 콘슬라트를 고를 때 주의해야 할 선택기준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KCC콘크리트는 ▲압축강도 50~60 MPa 이상 ▲휨하중강도(바퀴 4개의 8톤 중장비가 올라가도 이상없이 버틸 수 있는 수치) 2톤 이상 ▲흡수율 2.5% 이하(KS규격의 골재 합격기준은 3%

이하) 등 기준과 함께 시험성적서만 꼼꼼히 확인한다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콘슬라트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KCC콘크리트는 이와 같은 3가지 사항만 기억하고 확인한다면 한 번의 설치로 40년 이상 편안하게 사용 가능하며, 이와 더불어 표면 마감은 우수한지, 배출구는 규격에 맞으면서 날카로운 부분없이 마감에 깔끔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한다면 완벽한 콘슬라트를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CC콘크리트는 콘슬라트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강도 콘슬라트 제품 생산 및 시공은 물론 ▲현장에서 바로 시공할 수 있는 바닥면과 일체화되는 기둥을 개발(특허출원)해 시공 시 공사시간과 노동력을 50% 이상 단축시켰다.

또한 ▲하부가 완벽히 바닥과 맞닿아 돈방의 분뇨와 불필요한 통풍의 발생을 막아주는 출입문 및 밀폐문을 개발(특허등록)하였고 ▲고강도 성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게를 줄임과 동시에 분뇨 배출이 탁월한 신형 콘슬라트 개발(특허출원) ▲급이기 아래 설치 시 파임현상이 전혀 없는 급이기 밑판용 초고강도 콘슬라트 개발(특허출원) 등 양돈장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천하제일사료

육성-비육돈 신제품 '더 마이티' 출시

혁신적인 가공기술 PNB 공법 담아 '기호성·소화율 극대화'
다양한 영양소 균형 조절 통해 빠른 비육돈 생산 가능



▲ 천하제일사료가 육성-비육돈 신제품 '더 마이티'를 새롭게 출시했다.

천하제일사료(대표이사 권천년)가 혁신적인 가공 기술 PNB 공법을 담아 기호성과 소화율을 극대화한 육성-비육돈 신제품 '더 마이티'를 새롭게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육성-비육 구간의 '더 마이티' 제품은 돼지가 많은 영양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섭취하고 소화할 수 있어 향상된 출하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돼지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 및 아미노산 등 다양한 영양소들의 균형을 정밀하게 조절함으로써 빠르고 효율적으로 비육돈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NEW 키네틱 영양 시스템도 함께 적용하여

영양소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이용 효율을 극대화해 최근 양돈농가의 생산비 상승에 대응하는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으로서 양돈농가의 수익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하제일사료 마케팅실은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곡물가 상승, 인건비 및 물류비 증가 등의 이슈로 돼지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천하제일사료가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60년간의 영양 노하우와 최신의 영양 이론을 결합한 신제품 '더 마이티'를 개발하게 됐다"고 출시 배경을 설명했다.

금번 신제품 개발을 담당한 박진성 양돈PM은 "탁월한 기호성을 자랑하고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더 마이티'는 단연컨대 '농장 수익을 위한 완벽한투자이다. '더 마이티'를 통해 우리 양돈농가들이 수익과 성적의 극대화를 이루고 최고의 생산성을 만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천하제일사료는 양돈 신제품 '더 마이티'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양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장의 유전력과 사육환경, 사양관리에 따라 농장에 가장 적합한 급여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생산성 향상과 사료비 절감을 실현할 수 있는 'FD서비스'와 함께 다단계 급여를 통한 최적 급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농장별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정밀하게 설정하고 성장 단계별 농장 적합 제품을 적용해 사료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일당 증체량 극대화와 사료비 절감 실현을 제공하고 있다.

■ 문의 : 070-8640-4118

피그하우징·올인한국

하이브리드 복합 방역기 '바이킬러' 공급

최적 분무입자 크기로 방역효과 높여...22 μ m 나노 미세입자 넓게 분사시켜 살균
분사거리별 '바이킬러 프리·점보·미니' 제품군 3가지 구성



▲ 양돈장의 차단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하이브리드 복합 방역기 '바이킬러'

피그하우징·올인한국(대표 김재관)이 양돈장의 차단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하이브리드 복합 방역기 '바이킬러' 신제품을 선보이고 본격 보급에 나섰다.

피그하우징·올인한국이 이번에 새로 선보인 살균 하이브리드 복합 방역기 '바이킬러'는 공기와 표면을 함께 살균한다는 의미의 하이브리드를 표방한 최초의 방역기다.

시중의 일반 방역분무기 대비 22 μ m 크기의 미세입자를 분사시켜서 표면 소독이 불가능한 공간까지 구석구석 살균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바이킬러'는 보다 적은 분사량으로 분무입자가 넓게 퍼져서 신속한 방역이 가능하고, 1리터 분무 시 약 290억개의 입자가 살포되면서 방역효과가 최고 수준이다. '바이킬러'에 들어가는 소독제는 동물약품 회사에서 판매해 농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중인 제품을 희석하여 분무할 수 있다.

특히 '바이킬러'는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에서 '국내 기술로 개발된 초소형 초고압분무시스템 적용을 통해 실내 공간 내 병원체의 공기전파 차단'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며 각종 병원성 세균과 바이러스의 전파 차단에 대한 효과를 입증받았다.

'바이킬러'는 ▲바이킬러 프리(분사거리 최대 10m) ▲바이킬러 점보(분사거리 최대 15m) ▲바이킬러 미니(분사거리 최대 5m) 등 3가지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그하우징·올인한국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복합 방역기 '바이킬러'를 통해 돈사 내부, 복도, 출하대, 공동 사무실, 차량소독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소독효과까지 우수해 양돈농가에서 효과적인 방역과 질병 차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 031-366-8256~7

(주)자이로

높은 토출압력과 강한 흡입력 지닌 ‘자이로펌프’ 공급

용적식 펌프의 한 종류, 기울기 변화방식으로 작동해 높은 토출압력 발휘
강력한 흡입력과 장단거리 이송 능력으로 협잡물 함유 물성 이송도 탁월



(주)자이로(대표이사 윤명호)가 개발 및 공급하는 ‘자이로펌프’는 각종 협잡물 등을 함유한 물성에도 우수한 대응력을 갖추면서 주목받고 있다. 높은 토출압력과 강한 흡입력을 가진 자이로펌프는 축산농가의 분뇨이송 고민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이로펌프’는 원동기로부터 공급받은 기계적 에너지를 통해 실린더 내부 유체를 압력에너지로 변환 송출하는 용적식 펌프의 한 종류이다. 운동체는 회전하지 않고 기울기 변화 방식으로 작동하여 섬유질

처럼 유연성 있는 물질에도 감김없이 토출이 가능하며 점도 변화에 자유롭다. 또한 구동축과 연동축 연결부에 스프링을 설치하여 이물질이 유입될 시 기울기 값이 보정되어 막힘없이 펌핑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높은 토출압력을 구현하여 강력한 흡입력으로 수직거리 100m 이상 거리의 분뇨 이송에도 용이하고, 저점도 및 점도 슬러리 이송도 거뜰하다. 완충기능 내장으로 각종 협잡물이 함유된 물성 이송에도 탁월한 성능을 지녔으며, 펌핑부는 특수강 재질로 제작되어 내마모성 및 내증식성을 높여 긴 수명을 유지한다.

자이로펌프는 ▲HS-600(처리능력 14톤/시간) ▲HS-750(처리능력 20톤/시간) ▲HS-1300(처리능력 35톤/시간) 등 3가지 타입으로 판매되고 있다. 스위치 조작으로 정회전과 역회전 등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며, 소음과 진동이 적다.

이 같은 제품 성능을 인정받은 자이로펌프는 최근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물성이 심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분야에도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자이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분야가 각종 젓가락, 뼈 등 단단한 이물질이 많아 물성이 심한데 최근 자이로펌프가 서울 강동구와 대구 소재 공공음식물 처리장 등에 활발히 보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 문의 : 041-622-7005



▲ 자이로펌프 매커니즘

(주)동진BLS

피내접종용 무침주사기 '애니젯(AniJet)-100' 공급

대용량 배터리 2,000두 이상 주사, 35,000회 이상 사용 가능



(주)동진BLS(대표이사 이원구)는 미라클스콥社에서 국내기술로 개발하고 현장에서 임상시험도 완료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혁신성과 공공성을 인정받아 우수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주사바늘 없이 피내접종하는 '무침주사기 애니젯-100'을 공급하게 되었다.

'애니젯-100'은 무침주사(Needleless Injector)로 바늘없이 높은 압력으로 약물을 분사·주입하는 방식이며, 기존의 주사바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이다.

이전부터 현존하는 제품들과 비교하여 효과와 성능에서 단연 우위를 보이며, 임상시험에서도 안정적인 항체가를 유지하였고, 주사바늘로 근육접종 시 문제점

(이상육발생, 주사침 잔존문제, 경제적손실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주사방식이다.

이러한 예로 통계에 따르면 구제역백신 접종이후 이상육 발생이 10배이상 늘어 발생율이 47.4%로 증가, 1회 접종에 따른 경제적 손실액이 연간 1,3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기존제품 대비 현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1.7(kg)의 주사기 본체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대용량 배터리로 2,000두이상 주사가 가능하고, 주입량의 편차도 $\pm 1\%$ 이하로 내구성면에서도 35,000회 이상을 보증한다.

또한, 오일백신용으로 개발되어 오일백신 및 수용성백신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본 신제품인 무침주사기 '애니젯-100'이 유침주사로 인한 문제점 해결로 양돈농가에 생산성 및 수익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는 뜻을 동진BLS 관계자는 밝혔다.

■ 문의 : 031-765-6245

(주)엔퓨텍

국내 최초 '소독필증 발급 사실 문자 전송 시스템' 구축 농장주가 소독필증을 보관해야 하는 번거로움 해소, 소독필증 재활용 사례 방지



2016년도부터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며 효율적인 살균과 방역을 연구하여 살균력으로 신기술인증(New Excellent Technology)을 받은 (주)엔퓨텍(대표이사 이화용)이 빈틈없는 방역을 위해 홍성군과 함께 국내 최초로 소독필증 발급 사실 문자 전송 시스템을 구축했다.

소독필증 발급 사실 문자 전송 시스템은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이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마쳤다는 것을 농장주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운전자가 소독필증을 농장주에게 전달하면 농장주가 필증을 모두 보관해야 했지만, 문자 시스템이 도입되면 필증을 보관하고 관리에 신경 쓸 필요 없이 휴대폰에 문자로 저장해 둘 수 있다. 또한 소독 사실을 문자로 알려주기 때문에 소독필증을 재활용하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다.

엔퓨텍 관계자는 “소독필증 발급 사실 문자 전송 시스템을 통해 시·군 차원에서 보다 세밀하게 차단방역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소독필증을 재활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이 농장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사실을 통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엔퓨텍의 거점소독시설 뿐만 아니라 약취저감시설, 폐사축보관함, 8대 방역시설 등 다양한 제품은 네이버 검색창에 ‘엔퓨텍’을 검색하여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 홈페이지: www.enputech.com
- 문의: 031-744-4549

(주)태우축산

모돈의 편안함 극대화한 분만스톨 업그레이드 버전 출시

기존 분만스에서 높이 100mm 가량 높여...모돈의 등 상처 예방
분만을 날개 각도 더 넓혀...같은 공간 대비 더 편안한 자세 취해



▲ 새로 업그레이드된 분만스톨

축산종합유통 전문기업 (주)태우축산(대표 이사 최영호)이 모돈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분만스톨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에 선보인 분만스톨은 기존 900mm에서 1,000mm로 높이를 100mm 가량 높여 고산차 모돈의 등이 스톨 보호대에 부딪히지 않도록 설계했다.

이에 따라 분만스톨 급이기 부분과 위/아래 설치된 니플도 100mm 가량 높아져 모돈의 사료 및 물 섭취량이 크게 개선됐다.

최영호 대표이사는 “분만들의 높이를 높이면서 고산차 모돈의 등이 스톨에 부딪히는 현상을 방지하고, 분만을 위로 머리가 나오지 않아 머리 끼임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만들의 높이가 높아진 가운데 윗니플 위치도 높게 새롭게 조정했다. 이에 따라 포유모돈이 물을 섭취할 때 모돈의 머리가 윗쪽으로 향하게 되면서 급수의 편의성이 대폭 개선됐다. 결과적으로 모돈의 입가 주위로 물이 흘러내리지 않아 물 허실을 줄이는데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분만스톨 옆 지지대와 날개부위 각도를 더 넓게 설계하면서 모돈이 누웠을 때 급하게 주저 앉는 현상을 방지해 압사사고를 예방하고, 같은 공간 대비 더 편안한 자세로 포유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최 대표이사는 “같은 공간의 스톨을 두고도 각도를 넓혀 누웠을 때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어 포유모돈이 더 편안한 자세로 포유하거나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 끝에 탄생한 제품이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태우축산이 절찬리에 공급하고 있는 절약형 워터컵도 음용 시 돼지 코가 물에 잠기는 구조로 설계해 물 장난 방지 및 물 절약에 크게 기여하는 제품으로 정평이 나 있다.

절약형 워터컵은 음용 시 머리를 흔들지 못하게 설계되어 물 장난을 예방함으로써 80%의 물 허실 절감 효과를 가져다 준다.

절약형 워터컵은 ▲특대 27.5cm(운동/모돈) ▲대형 21.5cm(모돈/비육) ▲중형 18.5cm(비육/육성) ▲소형 15.5cm 4가지 유형이 판매되고 있다.

■ 문의 : 010-2975-9556



▲ 절약형 워터컵

한돈퀴즈 & 당첨자 발표

📅 2024년 3월호 퀴즈

‘() (국내산 돼지고기)가 국대(국가대표)를 응원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국가대표 한돈 전달식은 2024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들에게 한돈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경기력 향상 및 사기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돈가하락으로 농가 전반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국가대표 선수단을 응원하고자 대폭적인 지원을 결정했다.

※ 이번 호 “한돈자조금,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에 한돈 전달”를 참고하세요.

이 름 :

연락처 :

소 속 : (양돈장□, 일반인□)

지 역 :

※ 농장 소속일 경우 '환기 FAN컨트롤러', '싸움안녕' 등이 경품으로 지급됩니다. (소속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월간한돈 다음 호 게재 및 개별 연락

■ 응모방법

2024년 3월 15일(금)까지 카카오톡 어플 우측 상단 '친구추가' 👤 아이콘 클릭, '친구찾기' 에서 '월간한돈'을 검색하세요. '월간한돈' 아이디어와 친구맺기를 해주시고, 1:1 채팅창으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한돈농가에 보다 도움이 되는 제품과 선물이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한돈선물 협찬을 원하시는 기업은 월간한돈 홍보팀(02-581-9751)으로 연락주세요.



신신파스 <각 (50매)> (2명)
/ 우진비엔지(주) 협찬



정성훈합1호세트 (1명)
/ (주)선진 협찬



골프공 1박스 (2명)
/ 한국엘랑고동물약품(주) 협찬



환기 FAN컨트롤러 EURO-9K (1명)
/ (주)유로하우징 협찬



돼지 서열싸움방지제
'싸움안녕' 1개 (1명)
/ (주)올인한국 협찬

📁 2월호 당첨자

신신파스	- 강원 윤*락(7988)
	- 경기 최*연(3623)
훈합1호세트	- 경기 김*섭(4949)
골프공	- 전북 이*영(7876)
	- 경기 김*성(0761)
컨트롤러	- 충북 홍*표(3692)
싸움안녕	- 충남 이*애(0504)



담배, 지금 끊어도 늦지 않아요! 기대수명 늘리세요

어느 나이에 담배를 끊든 기대수명은 길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토론토대 프라바트 지하 교수팀은 20~79세 성인 150만명을 대상으로 1974년~2018년 사이에 진행된 연구 자료를 15년 동안 추적 조사했다.

연구 결과, 연령, 교육 수준, 음주, 비만 등 다른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사망 위험이 담배를 전혀 피운 일이 없는 사람보다 여성은 2.8배, 남성은 2.7배 높았다. 이는 기대수명 중 12~13년을 잃는 것에 해당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또한 전에 담배를 피우다 끊은 사람은 담배를 피운 일이 없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30% 높았다. 40세 이전에 담배를 끊으면 담배를 전혀 피운 일이 없는 사람과 기대수명이 거의 같았으며, 어느 나이에 담배를 끊든 기대수명은 길어졌다.

연구 저자 프라바트 지하 교수는 “중년의 흡연자들은 대부분 담배 끊기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연구에 따르면 담배를 끊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은 맞지만, 언제 끊어도 늦지 않다”며, “금연은 암을 비롯한 많은 질병 위험을 줄이고 수명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미국의 의학 전문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월간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재미있는 축산물 이야기’ 축평원, 10년 만에 개정판 발간



‘해외에서 한우를 먹을 때 믿고 먹는 방법이 있나요?’, ‘오겹살은 삼겹살과 다른가요?’

이와 같은 축산물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시킬 책이 새롭게 발간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축산물 관련 질문과 답변을 모은 ‘재미있는 축산물 이야기’를 10년 만에 개정해 재발간 했다고 밝혔다.

재미있는 축산물 이야기는 축산물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모아 만든 책으로, 2014년 첫 발간 당시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가이드북 역할을 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책자 발간 10주년을 기념해 나온 이번 개정판은 다변화된

축산유통산업과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국민 관심도를 반영,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으로 ▲축종별 축산물 생산·유통·소비의 전반적 과정 ▲식육 관련 상식 ▲축산 관련 제도와 기준 정보 등이 담겼으며 독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진 자료와 도표, 통계자료도 함께 수록됐다.

책자를 보면 ‘오겹살과 삼겹살의 차이’를 묻는 말엔 ‘흔히 삼겹살이라고 부르는 것과 오겹살은 동일한 부위나 오겹살에서 돼지껍질(껍데기)이라고 부르는 부분을 제거한 것이 삼겹살로 오겹살은 쫄면한 식감을 좋아하는 사람이 선호한다’ 등 축산물과 관련된 100여개의 질문과 답변이 책자에 실렸다.

축평원은 축산물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과 정보를 전달하고 잘못된 오해와 오류는 정정하기 위해 향후 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재구성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재미있는 축산물 이야기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누리집(www.ekapepi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병홍 축평원장은 “축산 유통 관련 정보 제공과 콘텐츠 확산을 통해 지속해서 국민, 소비자와 소통하며 신뢰받을 수 있는 축산 유통 전문기관의 역할을 다하겠다. 축산유통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지원하며 우리 축산물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의 돼지 품종해설집’ 발간

**축산과학원, 전 세계 90종 소개...역사·특성·분포 등 설명
고구려부터 이어온 재래돼지 등 국내 세 품종도 실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전 세계에서 사육, 보존하고 있는 다양한 돼지 품종의 역사와 특징을 소개하는 ‘세계의 돼지 품종해설집’을 발간했다.

돼지는 약 9,000년 전부터 중국과 근동 지역에서 가축으로 길러지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세계적으로 정부 차원이나 민간에서 사육, 보존하고 있는 돼지는 2022년 기준 약 7억 8천400만마리에 이른다. 지리적 또는 종교적으로 돼지고기를 금지하고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식용하는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다. 책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스페인 ‘이베리안 돼지’, 곱슬곱슬한 금빛 털을 가진 헝가리 ‘망갈리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돼지 품종인 인도 ‘피미그 호그’ 등 90품종을 소개하고 있다.

경제성이 뛰어나 여러 나라로 퍼져나간 품종부터 기원한 지역 환경에 적응해 고유의 유전적 특징을 가진 품종에 이르기까지 돼지 품종별로 역사, 특성, 분포 등을 사진과 함께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 고유 가축유전자원인 한국 돼지 세 품종도 실려있다. 우리나라 돼지는 멧돼지에서 유래해 고구려 시대부터 한반도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국 품종과는 차별화된 유전적 특징을 갖고 있다.

이베리아반도에 서식하는 ‘이베리안 돼지’는 한때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으나, 지금은 스페인의 대표 재래 돼지로 인식되어 많은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다. 다양한 맛을 찾는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고, 고품질의 육류라고 알려진 덕분이다. 우리나라도 고유 가축유전자원인 ‘한국 재래돼지’를 보호하고 신품종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 재래돼지는 한반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적응하며 살아온 재래품종으로 축진참돈 계통과 제주흑돼지 계통으로 나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진참돈과 두록 품종을 교배해 ‘우리흑돈’ 품종을 개발했고, 제주흑돼지와 랜드레이스 품종을 교배해 ‘난축맛돈’을 개발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한만희 센터장은 “이번 책 발간으로 인류에 꼭 필요한 가축 생명자원 중 하나인 돼지 품종이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며, “신품종 개발 등에 가축 유전자원 활용을 늘리고, 다양한 유전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